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혜 선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계모설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방안
-한국의 <콩쥐팍쥐>와 베트남의 <땀감>을
활용하여-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윤 보 라

계모설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방안
-한국의 <콩쥐팥쥐>와 베트남의 <땀감>을
활용하여-

강 혜 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윤 보 라

인 준 서

윤보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국 문 초 록 >

계모설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방안

-한국의 <콩쥐팥쥐>와 베트남의 <땀감>을 활용하여-

본 논문은 계모설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방안에 관한 논문이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2009 한국어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교육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켜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다문화교육을 받아야 진정한 다문화교육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다문화교육에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계모설화를 활용한 방법과 수업지도안에 대해 연구한다.

먼저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문화교육의 현황에서는 한국의 다문화교육 현황과 한국어교육과정 안에서의 다문화교육 현황으로 나누어 연구한다.

그 다음으로는 계모설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방안이라는 큰 틀 안에서 <콩쥐팥쥐>와 <땀감>의 예비적 고찰에 대해 연구한다. 먼저 계모설화의 형성배경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서사구조와 변신 모티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그리고 설화의 인물의 성격은 주동 인물과 보조 인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주동 인물에는 설화에서 갈등관계를 이루는 전실 자식, 계모, 이복동생을 포함시켰고, 보조인물에는 그 외의 주변 인물인 전처와 아버지, 조력자를 포함시켜 살펴본다. 이러한 내용들을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콩

쥐팔쥐>와 <땀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계모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방안의 실재를 통해 국어과 교육과 다문화 교육의 연계 필요성과 계모설화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 수행평가를 통한 확대, 심화 방안을 살펴본다.

키워드: 콩쥐팥쥐, 땀감, 다문화교육, 계모설화, 서사구조, 변신모티프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8
II.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현황	11
1. 다문화교육의 개념	11
2. 다문화교육의 현황	14
1) 한국의 다문화교육 현황	14
2)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의 다문화교육	19
III. 계모설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방안	24
1. <콩쥐팍쥐>와 <뫼감>의 예비적 고찰	24
1) 계모설화의 형성배경	24
2) 서사구조와 변신 모티프	29
3) 인물의 성격	42
4) <콩쥐팍쥐>와 <뫼감>의 공통점과 차이점	62
2. 계모설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방안의 실제	67
1) 국어과 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연계 필요성	67
2) 계모설화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	72
3) 수행평가를 통한 확대, 심화 방안	93
IV. 결론	106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 목적

요즈음 지구촌 사회는 세계화의 흐름에 맞추어 나가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물론, 여러 문화의 교류와 함께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이에 한 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현상이 자연스러워 졌으며, 한국도 점차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유입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예로부터 오랫동안 단일민족이라는 틀 안에서 다른 민족이나 문화에 대해 배척하고,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역사적, 정치적으로도 단일민족과 단일국가를 강조해 왔으며 교육에 있어서도 한 핏줄, 한 민족을 강조하는 순혈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빠른 속도로 여러 국가의 인종들과 문화가 유입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인들과 한국사회로 유입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게 되면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에게 필요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게 되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언급이 교육과정에 드러난 것은 2009개정 교육과정이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언급된 별책 27인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언급하면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야기 하는 ‘다문화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적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을 서로가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활용방안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각 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이다. 설화는 그 나라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복합적인 집합

체이다. 오랜 시간 구전되고 전해지면서 그 나라의 문화·사회부터 시작해서 종교, 정치, 민족의식까지도 설화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교육 활용방안으로써 설화를 연구 자료로 사용한다면,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 중 특히 계모설화는 교훈과 흥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된다.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룬 여러 나라 중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국제결혼 비율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¹⁾의 계모설화에 대해 알아보고, 다문화교육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베트남은 1950년 북한과 단독 수교하였지만 개방이후 한국과는 1992년 12월에 대사급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개방·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중요한 모델로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회·문화적 교류가 확산되면서 2000년대 이후 영화와 드라마 등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일어나기도 했다.²⁾ 이와 같이 베트남은 한국과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1)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국제결혼이주자(계)' 자료를 참고 했으며, 출처는 안전행정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이다.

국적1	국적2	2010년	2011년	2012년
동남아	소계(명)	42,422	50,369	53,681
	베트남	30,173	35,355	37,302
	필리핀	6,321	7,476	8,292
	태국	2,029	2,533	2,593
	인도네시아	397	461	506
	캄보디아	3,230	4,195	4,561
	미얀마	78	81	76
	말레이시아	49	81	94
	홍콩	71	-	13
	기타	74	187	257

2) 외교부, 「베트남 개황」, 2012, 외교부홈페이지(www.mofa.go.kr).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교육의 대상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모든 아이들이 다문화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을 교실에서 학습하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설화 중 가장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재미와 교훈을 함께 갖춘 계모설화를 선택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계모설화를 분석하고, 각 나라별로 비교를 통하여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차이점을 갖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계모설화를 연구함으로써 설화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 각 나라의 문화적이거나 사회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안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언급된 다문화교육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계모설화를 연구한다. 국어교과 안에서 문학작품으로서의 설화 작품도 살펴보면, 다문화교육의 자료로서도 설화자료를 활용한다면 국어교과 안에서 자연스럽게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에 대한 수업지도방안과 수업지도의 실제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선행 연구 검토는 차례로 한국의 계모설화인 <콩쥐팥쥐>에 대한 연구와 다른 나라에 대한 계모설화 연구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베트남 계모설화에 대한 연구와 베트남 설화와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국어교과 안에서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계모설화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이다. 처음 최운식에

의해 계모설화의 연구가 시작된 뒤 그 뒤를 이어 정상진, 정영철 등에 의해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운식³⁾의 경우 계모설화의 유형과 전승 양상, 구조와 의미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계모설화의 유형을 크게 착한 계모 이야기와 악한 계모 이야기로 나누고, 악한 계모 이야기를 또 다시 어린 아들을 버린 계모형, 난제를 부과하는 계모형- 겨울철에 채소 구해오기· 말하는 피꼬리와 춤추는 소나무 구해오기,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형, 콩쥐 팥쥐형, 딸의 부정을 꾸미는 계모형-원귀 출현에 의한 해결· 남장한 신부가 해결· 신랑이 해결· 상객의 지혜로운 해결,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형, 자부의 부정을 꾸민 계모형, 새 사위를 죽이려는 계모형, 신부를 바꿔치기한 계모형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착한 계모 이야기의 구조와 악한 계모 이야기의 구조, 순환구조로 설화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큰 범위에서 점점 작은 범위로 세분화하여 계모설화의 구조 유형을 설명하고 있어, 빠지는 부분 없이 모두 범위 안에서 다루는 자세함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 대상의 자료가 200여 편 가까이 되는 설화 가운데 35편이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의 범위가 매우 좁았다. 전체의 20%가 채 되지 않은 연구 대상을 가지고 실행한 연구가 전체적인 설화의 유형을 분리하는데 과연 얼마나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정상진⁴⁾은 계모설화의 유형을 계모의 전실 아들 살해와 신부의 범인 탐색담, 계모의 전실 아들 살해 음모와 그 실패담, 계모의 음해로 축출된 전실 딸의 성공담, 계모의 흉계에 의한 전실 아들의 실명과 그 회복담, 콩쥐팥쥐담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설화들에서 나타나는 갈등구도와 의미에 대한 탐색을 하고 있다. 각각의 설화 유형을 설명하면서 고소설의 작품을 예로 들면서 소설의 어느 부분에 설화의 유형이 들어갔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3) 최운식, 「계모설화에 대하여」, <한국민속학> 제 19집, 한국민속학회, 1986.

4) 정상진, 「계모형 설화의 전승 및 서사 양상과 의미」, <외대어문논집> 제 18집, 부산외국어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3.

있다. 이런 예를 통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작품과 유형을 연관 지어 이해를 할 수 있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저런 작품들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다 보니, 한 번에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복잡하다. 여러 작품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이 뒤죽박죽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러 작품들을 표로 정리해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면 이해력을 높이는데 유리한데, 이러한 점이 부족했다.

정영철⁵⁾의 경우 계모 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의 구조를 비교·분석하고, 등장인물의 유형성을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계모 설화와 계모형 고소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이는 혈연으로 이어진 가정 안에 외부인인 계모가 들어오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이야기이다. 계모는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인으로 가정에서 이미 혈연으로 이어진 이들과 공통점을 가지지 못했다. 때문에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뺏기지 않고 뺏기 위해 계모는 전설 자식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항상 계모는 악인의 모습으로 형상화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 아래서 계모를 판단한 것이고, 이는 다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대적인 시각으로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예로부터 내려오던 계모설화를 현대까지 연결시켜 폭넓게 이해하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역시 여러 작품을 예로 들어 연구하고 결론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범위가 좁다는 점이 한계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계모설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편이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중국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 보인다. 그 중 일본의 계모설화에 대한 박연숙⁶⁾의 연구가 자세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나머지 연구의 경우 <콩쥐팥쥐>의 여러 유형 중 한 가지 유형만을 다

5) 정영철, 「계모설화와 계모형 소설의 비교 연구: 구조와 유형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 24집,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4.

6) 박연숙, 「한국과 일본의 계모설화 비교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루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박연숙은 연구에서는 <콩쥐 팥쥐>와 <고메후쿠 아와후쿠(米福栗福)>, <연이와 버들도령>과 <의붓자식의 딸기 구해 오기(子のいちご取り)>, <손 없는 색시>와 <손 없는 처녀(手無し娘)>, <약 되는 간>과 <의붓자식의 간 내기(継子の肝取り)>, <우묵낭상>과 <순토쿠마루(俊徳丸)>, <의좋은 이복 자매>와 <오긴 고긴(おぎんこぎん)>, <의붓자식을 우물에 빠트리기>와 <의붓자식의 우물 파기(子の井堀り)>, <생선 머리>와 <의붓자식과 생선(継子と魚)>, <볶은 삼씨>와 <의붓자식과 볶은 콩(継子の炒り豆)>, <잠자리 바꾸기>와 <인형으로 바꿔치기(人形の身替わり)>로 총 10편의 한국 설화와 일본 설화를 비교한다. 다양한 작품들을 선정하여 각 설화들이 어떻게 전승되고, 어떠한 유형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전해져 오고 있는지 정리하고, 각 나라의 설화들이 갖는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작품들을 선정하여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문학에 관한 연구는 다른 동아시아의 설화에 대한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여러 편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⁷⁾ 설화 같은 경우, 여러 종류에 관한 설화에 대하여 진행이 된 것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베트남 설화를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를 가장 활발한 하게 진행하는 것은 전해경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양민정, 김지선, 강은혜 등에 의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해경⁸⁾은 한국과 베트남의 동물 기원담을 통하여 각 나라의 국민들의 기층의식에 대한 고찰을 연구하였다. 인간이 동물화한 이야기 중 조류곤충가축기타로 나누어서 각각 2편씩을 선택해 같은 소재의 한국설화와 대비시킴으로써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금은 생소한 설화들을 여러 편 소개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종류의 설화를 접할 수 있었다.

베트남의 계모설화의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다. 계모설화에 대한 연구는

7) 김기태, 「한국인의 베트남 문학연구 고찰」, 한국베트남학회, <베트남연구> 제 2집, 2001, p.22.
8) 전해경, 「한국-베트남 설화의 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베트남인의 기층의식에 대한 고찰-동물기원담을 중심으로-」, 한국베트남학회, <베트남연구> 제 3집, 2002.

박연관⁹⁾과 앞에서 이미 언급한 전해경의 논문을 볼 수 있다. 전해경¹⁰⁾은 한국 계모설화와 베트남 계모설화를 순차적 단락, 인물 구조, 배경, 구성, 변신 양상, 표현 형식, 주제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다른 논문들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누어 연구를 했으며, 특히 차이점을 문화, 종교,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분하여 연구한 것이 특징이다.

베트남 설화를 다문화교육으로 연결 시켜 연구한 논문은 양민정과 강은혜 등의 논문을 찾아볼 수 있다.

양민정¹¹⁾은 설화 중 널리 알려진 <나무꾼>과 선녀형 설화를 아시아 국가인 한국·중국·베트남·몽골의 설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을 넓게 잡아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부터 베트남과 몽골까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지역의 설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가족 문화적 관점에서 각 나라의 설화를 비교 연구 했으며, 설화 비교 연구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설화연구를 통하여 교육적의의 더 나아가 다문화교육적 의의를 찾으려 했다. 설화를 현대적 시각에 맞게 교육적 자료로서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강은혜¹²⁾는 우리나라에서는 ‘아기장수 우투리’로 잘 알려진 아기장수 설화를 중심으로 사회 교육적 함의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아기장수 설화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 중의 하나로, 사회 입문을 위한 말로 이루어진 교과서로의 설화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적 의미에 대한 설명에 치우치다 보니, 설화의 형성배경이나 설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

다음으로 우리 국어교과 안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이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어느 정

9) 박연관, 「‘콩쥐팍쥐’와 ‘Tam Cam’ 비교 연구」, 한국베트남학회, <베트남연구> 제 3집, 2002.

10) 전해경, 「한국-베트남 설화에 나타난 여성상 및 기층의식 비교 연구 -한국의 『콩쥐팍쥐』와 베트남의 『땀감』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베트남학회, <베트남연구> 제 9집, 2009.

11) 양민정, 「<나무꾼과 선녀>형 설화의 비교를 통한 다문화 가정의 가족의식 교육연구-한국·중국·베트남·몽골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제 15집, 2002.

12) 강은혜, 「동아시아 아기장수 설화의 전승과 그 사회 교육적 의미: 한국·일본·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 문화연구> 제 20집, 2009.

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중 박영민·최숙기¹³⁾는 다문화 시대에 국어교과서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다문화 사회에서 국어교육의 역할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다문화의 문식성을 고려한 제재 선정 및 학습활동 구성 방안을 연구 및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원의 구성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박현주¹⁴⁾의 연구는 다문화교육 관점에서 고전 텍스트 활용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범주를 언급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고전 텍스트 활용 교육 모형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 모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비교도 함께 제시한 점이 한 눈에 모형들을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제시한 모형을 실제로 적용해보지 못하여 실제로 어떠한 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에서는 <콩쥐팍쥐>와 <뫼감>을 먼저 각 나라의 계모설화의 형성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 설화의 서사구조와 인물들에 대해 비교연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그 안에서 언급된 다문화교육에 대하여 계모설화의 다문화교육 교육활용방안의 실제로서 수업지도방안과 수업지도의 실제에 대해 살펴본다.

본 논문에 나오는 연구 대상이 되는 <콩쥐팍쥐> 설화 유형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콩쥐팍쥐>는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구전설화』(임석재전집)에 수록된 <콩쥐 팍쥐>형 설화는 19편이 있다. 분포 지역은 평북(2), 경기도(3), 충남(1), 전북(4), 전남(2), 경북(1), 경남(3), 제주도(3)이며, 평안도에서 제

13) 박영민·최숙기, 「다문화 시대의 국어교과서 단원개발을 위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제 34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6.

14) 박현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고전텍스트 활용 교육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주도까지 널리 분포한다.¹⁵⁾<콩쥐팍쥐>의 경우 19편의 유형 중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1편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나머지 설화의 유형은 표로 정리하여 대략적인 설화의 서사구조와 모티프양상과 전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뽕감>의 경우 전해경의 논문에 실린 『Truyen co Vietnam』의 유형을 재인용하여 저본으로 삼는다.

II장에서는 먼저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다문화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그 다음 III장에서는 먼저 한국과 베트남의 계모설화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하여 <콩쥐팍쥐>와 <뽕감>의 비교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각 나라의 계모설화의 형성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설화는 예전부터 내려오

15) 박연숙, 앞의 논문, p.69.
위의 19편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각편	명칭	채록지역	발표된 책	쪽수
1	콩쥐팍쥐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대계 1집-4책	785
2	콩쥐팍쥐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대계 1집-9책	246
3	콩쥐팍쥐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대계 1집-9책	460
4	콩쥐팍쥐	전북 남원군 송동면	대계 5집-1책	268
5	콩쥐팍쥐	전북 남원군 산동면	대계 5집-1책	361
6	콩조지 팍조지	전북 완주군 고산면	대계 5집-2책	538
7	콩대기와 팍대기(2)	전남 화순군 도곡면	대계 6집-10책	201
8	콩남이와 팍남이	경북 구미시 선산군	대계 7집-16책	111
9	콩쥐팍쥐	경남 밀양군 삼랑진읍	대계 8집-8책	102
10	백설공 이야기	제주도 서귀포시 남제주군	대계 9집-3책	684
11	콩쥐팍쥐	평북 정주군 관선면	임석재 1권	133
12	콩쥐팍쥐	평북 평산군 안성면	임석재 3권	251
13	콩쥐팍쥐	충남 연기군 금남면	임석재 6권	307
14	콩쥐팍쥐	전북 정읍군 소성면	임석재 7권	263
15	콩쥐와 팍쥐	전남 영광군 대마면	임석재 9권	71
16	콩쟁이 풀쟁이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임석재 9권	261
17	콩쟁이 풀쟁이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임석재 9권	262
18	콩쥐팍쥐	경남 밀양읍	임석재 10권	301
19	콩쥐팍쥐	경남 창녕군 연산면	임석재 11권	57

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보다도 그 나라의 색이 짙게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설화의 형성배경을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후에 <콩쥐팥쥐>와 <뫼뎀>의 서사구조와 설화에 나타나는 변신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계모설화의 큰 서사구조는 ‘계모의 영입-전실 자식과 계모·이복동생의 갈등 및 학대-전실 자식의 시련극복-계모 및 이복동생에 대한 응징’이다. 이런 서사구조 안에서 다양한 모티프를 통해 설화가 전개 된다. <콩쥐팥쥐>와 <뫼뎀>의 서사구조를 분석하고,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는지, 아니면 다른 의외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서사구조와 함께 설화를 이루는 것은 큰 줄기는 인물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전실 자식, 계모, 이복동생, 전처, 아버지, 조력자에 대해 인물의 성격을 분석해 본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등장인물이 어떠한 특징과 공통점, 차이점을 갖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Ⅲ장 후반부에서는 Ⅱ장의 내용과 Ⅲ장의 전반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계모설화의 다문화교육 활용방안 실제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에 14종 교과서 중 좋은 책 신사고 중학교 ①(우한용)중 4단원 갈등과 해결 단원을 선정한다. 이 단원의 제재를 계모설화로 바꾸어, 단원에서 제시하는 단원의 목표와 함께 다문화교육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Ⅱ장에서 다루었던 계모설화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으로 실제 수업지도안을 작성해 보고, 수업지도안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학습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II.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현황

1. 다문화교육의 개념

‘문화’라는 말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쓰인다. 사회문화·공연문화·스포츠문화·온라인 게임 문화 등으로 쓰이는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이러한 문화의 사전적 정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쓰이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 의미도 매우 포괄적이다. 그리고 앞에 ‘다-’라는 ‘여러’ 또는 ‘많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가 붙어 ‘다문화’라는 말이 완성된다. ‘다문화’자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가 있지 않고, ‘다-’와 ‘문화’를 따로 찾아보아야 한다.

영국의 인류학자인 Tylor(1871)¹⁶⁾는 문화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인간이 획득한 지식, 믿음, 예술, 도덕, 사랑, 규범 그리고 습관들을 포함한 복합체로 보았다. 특히 문화는 인간의 생활을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습관과 신념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양식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한 사회에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는 실제로 존재하고 느낄 수 있고,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속에서 경험된다고 할 수 있다.

이선¹⁷⁾은 문화를 땅에서 무언가를 가꾸고 경작하여 얻어내는 농경활동이라

16) 정선희, 「다문화교육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p.5 재인용.

17) 이선, 「헤르더의 다문화성과 니체의 가로지르기 문화성」, 한국니체학회, <니체연구> 제 13집, 2008, p.p.121-125.

고 정의하였다. 이 농경 활동의 의미를 인간 행위 전반으로 확대 시킨다면, 문화는 자연을 경작하여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획득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문화의 의미는 역사의 흐름에 의해 크게 세 가지의 파생된 함의를 지닌다. 첫 번째는 제작적 의미를 지닌다.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는 우선 자연을 일구어 물질적인 산물을 얻는 것으로 출발하여 기술과 학문, 더 나아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치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도덕적 의미이다. 물질적 획득이 아니라 정신적인 도야나 교양을 의미하면서 이것은 키케로(M.T. Cicero)의 '영혼의 도야'라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그리스어 '파이데이아(paideia)'와의 연관성 속에서도 사용되는데, 파이데이아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인간성의 형성 과정 자체를 긍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의미까지 함축한다. 푸펜도르프(S.v. Pufendorf)가 문화를 최초로 명사로 활용하면서 문화를 자연 상태와 대립시키면서 그 의미를 확대시켰다. 그 전까지 개인의 정신적 도야와 인간성 추구로서 교양의 범위에 머물러 있던 문화 개념의 의미를 푸펜도르프가 한층 더 의미를 깊게 만든 것이다. 그에게 자연 상태란 사회적으로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문화개념은 개인들의 영혼의 도야와 인간성 추구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과의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위에서 '문화'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다. '문화'를 우리 주위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주위에서 '다문화' 혹은 '다문화교육'이라는 말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말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부터 더욱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교육인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를 한 마디로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 교육을 받는 대상은 누구이며, 어떠한 것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자들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데이비드만(Davidman, 1994)은 다문화교육을 네 가지 범주로 정의했다. 첫째, 문화적 다원주의다.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다양성의 인권존중, 타문화 유형에 대한 더 많은 이해, 모든 문화를 가진 개인 존중, 다양한 문화집단들의 경험과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상호작용의 발전을 수용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평등이다. 다문화교육은 교육개혁운동으로서 문화적·민족적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평등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학생의 문화적 배경이 교실수업과 바람직한 학교환경을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하나의 교육전략이다. 셋째,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이 다른 민족적 기원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민족적 기원으로부터 유래된 사실, 일반화, 태도 그리고 행동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신중한 교육적 시도이다. 넷째, 다문화교육은 사회재건주의, 다인종교육, 글로벌 교육 등과 같이 교육에 대한 다른 철학적운동과 통합하는 것이다.¹⁸⁾

다음으로 뱅크스(Banks)는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사회계층, 인종 및 민족 집단과 성(性)집단의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육제도를 재구조화 할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운동”이라고 정의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개혁운동이다. 둘째, 평등·정의·인권과 같은 미국 민주주의 이상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셋째, 민주주의적 이상과 학교 및 사회의 실제 간에 항상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끝나지 않은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렸다.¹⁹⁾

18) 양미영, 「다문화교육을 위한 국어교과서 내용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p.13 재인용.

19) 하숙현, 「다문화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양육실제 연구조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p.6 재인용.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이것은 그만큼 다문화교육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교육을 바라보는 범주와 그 대상 등 어떠한 시각을 중점적으로 보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정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마음을 길러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외국의 학자들과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정의한 다양한 다문화교육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한국에서는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음에서 살펴보겠다.

2. 다문화교육의 현황

1) 한국의 다문화교육 현황

위에서 다문화교육의 다양한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고, 현재 그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최초 대응은 1993년 11월 도입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연수생' 제도이다. 하지만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 대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문화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문화 사회에 대해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의 중반부터이다.²⁰⁾

이러한 다문화 정책의 현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있다. 먼저 외국인 정책을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20) 서범석, 「다문화교육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탐색」,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p.p.111-112.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으로 정의하였다.²¹⁾

다문화 정책은 우리 사회에 유입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내국인들에게도 함께 행해져야 한다. 외국인과 내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야 비로소 하나 되는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나 내국인 어느 한 쪽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교육은 반쪽짜리 교육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 가운데 외국인 정책은 질 높은 사회통합 중점과제인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이고, 내국인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중점과제인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이다.²²⁾교육이 이루어지는 대상은 유아 및 청소년, 교사 및 강사, 다문화 관련 관계자 및 다문화가족이다. 이를 표로 만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 다문화교육 현황>

내용 대상	외국인정책	부처	내국인정책	부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유아 및 청소년	*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 * 유치원 교육과정 안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교과부	*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 및 교제·지도 자료 발간	교과부
교사 및 강사	* 다문화 대상국가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 * 유·초·중등 교사 등의 다문 화 교육 역량 강화		* 유·초·중등교사의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21) 서범석, 앞의 논문, 2010, p.119.

22) 최우인, 「다문화교육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p.p.74-75.

다문화 관련 관계자 및 다문화 가족	* 다문화 관련 포럼·세미나 등을 개최 *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사업 추진	여가부	* 문화 교류·생활 체육 프로 그램 활성화	문화부
	* 다문화 관련 포럼·세미나 등을 개최 *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법무부	* 다문화청소년 워크숍 등 교류 강화 *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발굴·확산	여가부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외국 문화 체험 전시회)	문화부	* 지역문화기반시설을 활용 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문화부 · 여가부
	*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설치·인력 확충) * 다문화 정착 우수사례 확산	행안부	*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지원 및 각종 공모전 개최	문화부 · 여가부 · 법무부 · 행안부

유아 및 청소년과 교사 및 강사의 경우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교육부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외국인 정책의 경우 유아는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부터 다문화교육에 대하여 교육하고, 청소년의 경우 그들이 공교육을 받는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이 담긴 자료를 발간하여 교육한다.

강사 및 교사의 경우에는 앞에서 먼저 살펴본 유아 및 청소년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해 더 잘 알아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빠질 수 없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정책이 ‘유·초·중등 교사 등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로 같으나 외국인 정책에 ‘다문화 대상국가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이는 외국인 교사와 강사가 자국이 아닌 우리나라로 왔을 경우 우수예비교사의 글로벌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대상국가의 교사교류를 통한 양국 교원 역량강화와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시행되는 정책이다.

다문화 관련 관계자 및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먼저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여가부가 부처인 다문화 관련 포럼·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것과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사업 추진이 있다. 포럼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좀 더 다양한 여러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서 어느 한 대상으로 국한하여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시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일환이다. 다문화 관련 포럼·세미나 등의 개최와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는 법무부가 주관한다. 문화부가 부처로 하는 사업에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대표적인 것으로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외국 문화 체험 전시회가 있다. 전시회를 통하여 직접 그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외국 문화에 대해 느낄 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설치·인력 확충이 하나의 예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다문화 정착 우수사례 확산은 행안부가 부처가 되어 진행한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대상을 먼저 파악하고, 이러한 대상들을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우수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다.

다문화 관련 관계자 및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내국인 정책을 살펴

보면 먼저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내국인문화 교류·생활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에 대해 알아가고, 땀을 흘리는 체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여가부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워크숍 등 교류 강화,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발굴·확산 등의 정책을 실행한다. 다문화 가정에서도 대상을 좀 더 좁혀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지역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도 여가부에서 실행하는데, 이것은 문화부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책이다. 문화기반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문화부와 함께 정책을 실행한다. 가장 많은 부처가 주관하는 정책은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지원 및 각종 공모전 개최인데 이는 문화부·여가부·법무부·행안부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는 매우 다양하지만,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동시에 실행하는 정책은 ‘세계인의 날 행사’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양한 부서 가운데 시범적으로 몇 개의 부서에서라도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각각 집중하여 정책을 실행하는 것과 더불어 동시에 정책을 실행하여 보다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다문화 정책의 현황’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표에 나온 대상은 교육과정안에서 교육을 받는 유아 및 청소년, 그들을 교육과정을 토대로 가르치는 교사 및 강사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에 깊이 관련된 다문화 관련 관계자 및 다문화 가족이다. 이들이 받는 다문화교육과 이에 관련된 정책들은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다양하지만 모든 정책의 핵심 내용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연구 목적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로 하여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목적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의 다문화교육

학교는 공공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지식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책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 안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는 가장 먼저 학생들이 집단을 이룰 수 있는 장소이다. 그래서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과 마주하고, 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 중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섞여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가장 먼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만나는 장소는 거의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러한 다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나중에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먼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²³⁾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과목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교과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름으로써 장차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게 하는 과목이다.

한국어 교육과정을 신설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문화 간 상호 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언어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 현장 또한 언어적·문화적으로 다양한

23)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어교육과정』(2009개정 교육과정 별책 27), 2012, p.p.1-2.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에서 이다.

한국어 과목은 다양한 언어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전에 획득한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원래의 문화와 한국 문화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단일한 문화적 공동체를 이루어 온 사회였지만 이제 서로 다른 문화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가운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해 가야 한다. 언어적·문화적·민족적 배경과 상관없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문화적 차이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며, 다양한 언어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사회의 곳곳에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할 때이다. 한국어 과목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일상생활에서 적절하고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하며,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학교교실 수업 상황에서 능동적인 학습자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한국어 능력을 기르고,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호 문화 이해 및 소통 능력,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태도와 정체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어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한다.

- 나.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학교 교실 수업 상황에 능동적인 학습자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한국어 능력을 기른다.
- 다.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호 문화 이해 및 소통 능력을 기른다.
- 라.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한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태도와 정체성을 함양한다.

세부 목표의 경우 가, 나, 라는 한국어 교육을 중점으로 설명했다면, 다의 경우에는 목표를 한국어에 국한 시키지 않고, 더 넓게 잡아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언급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체계²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 한국어	학습 한국어
언어 기능 -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언어 기능 -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언어 재료 - 주제 · 의사소통 기능 - 어휘 · 문법 · 발음 - 텍스트 유형	언어 재료 - 국어 · 수학 · 사회 · 과학 주제 별 핵심 어휘 - 학습 의사소통 기능 및 전략
문화 의식과 태도	
- 문화 인식 · 이해 · 수용	
- 긍정적 자아정체성 · 공동체 의식	

24)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p.3.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을 가장 기본으로 강조하고 있다. 위의 내용체계 표를 살펴보면 한국어의 교육을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 그 안에서 다루는 영역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로 동일하다. 그 영역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재료는 각각 다르다. 이러한 언어 재료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차례로 초등학교 언어 재료·중학교 언어 재료·고등학교 언어 재료를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 재료는 다시 생활 한국어 영역-주제 및 의사소통 기능 목록·텍스트 유형·문법유형·어휘유형으로 세분화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습 영역, 주요 교과 주제별 학습 어휘 목록도 살펴 볼 수 있다. 이것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주요교과의 경우에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변화하여 나타난다. 초등학교 때는 간단하고, 표면적이고 쉬운 언어재료를 사용하여 학습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어휘는 조금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단계적으로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으로 심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어우르면서 문화 의식과 태도에 관한 것을 내용체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어떠한 교과목에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여러 과목에서 두루 다루어주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국어 교과를 통해서는 비판적 사고, 논리·분석적 사고, 상상력, 유추·은유적 사고, 확산적 사고 등을 신장한다. 이를 위해 토의, 토론, 탐구·발견학습, 프로젝트 수업, 창의적 사고 기법, 협동학습, 역할놀이 등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문학 속 인물들의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하기, 비교 대조하는 글쓰기 등을 고려한다.

위에서 살펴본 성격과 목표 중에서는 ‘목표-다.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호 문화 이해 및 소통 능력을 기른다.’와 함께 내용체계

에서는 ‘문화 의식과 태도 - 문화 인식·이해·수용, 긍정적 자아정체성·공동체 의식’이 본 논문이 후반부에서 살펴본 <콩쥐팍쥐>와 <뽕깜> 계모설화를 활용하는 다문화교육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에서 계모설화를 활용한 수업지도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Ⅲ. 계모설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방안

1. <콩쥐팍쥐>와 <땀감>의 예비적 고찰

1) 계모설화의 형성배경

앞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계모설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방안의 자료가 되는 <콩쥐팍쥐>와 <땀감>에 예비적 고찰을 하도록 한다.

‘계모’의 사전적 의미는 ‘아버지의 후처, 의붓어머니’²⁵⁾이다. 가정 내에서의 계모의 위치는 대개 유동적이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전처소생인 전실 자식과의 관계 때문이었다.²⁶⁾이러한 계모의 가정에서의 한계와 특성으로 인해 계모는 전실 자식과의 미묘한 관계에서 오는 많은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계모와 전실 자식이 갈등 없이 화목하게 지내는 경우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피가 섞이지 않은 계모와 전실 자식의 관계는 대개가 결끄러운 경우가 많았다. 특히나 계모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계모의 소생이 전실 자식에게 가정에서의 위치를 빼앗기게 될까봐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대부분이었다.

설화는 그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나라의 고유한 영향을 받아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계모설화는 어떠한 형성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조선시대는 전반적으로 유교사상이 지배하던 사회였다.

전통적인 유교사상은 여자는 어려서부터 노인이 될 때 까지 남자를 따르는 삼종지덕²⁷⁾과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비롯된 칠거지악, 그리고 딸을 인격적

2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26) 노대환·신병주,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돌베개, 2002, p.p.115-117.

27) '좃아야 할 세 가지의 도리(道理)'라는 뜻으로, "여자는 세 가지의 좃아야 할 길이 있는데[女子有三從之道], 집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在家從父], 시집을 가면 지아버에게 순종하며[適

인 개체로서가 아니라 재산으로 여기는 비윤리성과 혈통 유지나 경제적인 목적을 내세워 여성들을 짓눌렀다.²⁸⁾ 여성이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첩을 들여 대를 잇는 것이 당연시 되었고, 여성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한 경우 가정에서 쫓겨나 내쳐지는 경우도 빈번했다.²⁹⁾ 또한 신분의 구별이 엄격해져 상하층 간의 규율이 엄격해 졌고, 나라에 대한 충성이 강요되면서 절대시 되던 사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회에서는 남성은 가정 안에서 절대적인 힘과 지위를 갖지만 여성은 지위가 낮았다. 배우자가 사별을 하거나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 남성은 첩을 두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일이었지만, 여성은 사별을 한 후에도 재가를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정절을 지키려 자결을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여성은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남성을 따라야 하는 삼종지덕에 의해 언제나 남성에게 속해있는 존재였다. 이러한 여성의 지위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다. 남성의 말 한마디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는 사회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유교 사상이 조선시대 여성들의 현실적인 욕망과 부딪치게 되면서 갈등이 증폭되었다.³⁰⁾

이런 사회에서 계모의 위치는 앞에서 미리 이야기한 것보다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가정에서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 않다는 불안감이 가정에서 계모의 위치를 협소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모는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확장함과 동시에 자신이 데리고 온 소생을 완벽히 가정 안에 소속된 일원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처의 소생인 전실 자식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계모와 전실 자식의 갈등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을 맺을

人從夫], 지아비가 죽으면 아들의 뜻을 좇아야 한다[夫死從子].”는 것을 말한다.

28) 조재현·송정남, 『베트남 들여다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p.406.

29) 우쾌제, 「가정소설에 나타난 가족의식 고찰」, <고소설연구> 제 2집, 한국고소설학회, 1996, p.p.135-141.

30) 백수근, 「계모형 고소설의 갈등구조와 인물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p.92-94.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가정의 와해를 가져왔다.

사회는 이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집단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보려 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리하여 가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법으로 설화가 이용되었으리라 생각된다.³¹⁾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부모와 자식의 갈등은 당시 또 하나의 가정문제인 처첩 갈등과 함께 유교가 중시하는 가정을 파탄시키는 주된 요인이었다. 제가(齊家)가 곧 치국평천하로 이어지니 지식층들은 이의 실현을 위한 걸림돌을 문제 삼아 가정의 상하질서를 바로잡고자 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자녀에게는 효를 교육하고, 부모에게는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가정과 가문의 평안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식이 사회에 팽창했을 것이다. 이런 사회적 요구가 심화되는 시기에 때마침 전승되던 계모설화는 그런 현시대를 반영하는 적절한 소재였기에 이용되었던 것이라 보아진다.³²⁾

이러한 유교 사상의 사회와 혈연중심의 가정과 함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조선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 외부에서 들어온 인물인 계모는 설화에서 악인으로 남게 되었다.

<콩쥐팥쥐>는 이러한 영향을 받아 형성 되었고, 고소설 <콩쥐팥쥐전>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 사실 설화 <콩쥐팥쥐>와 고소설 <콩쥐팥쥐전>은 그 서사구조나 내용면에서 설화와 소설로써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콩쥐팥쥐>와 <콩쥐팥쥐전> 모두 같은 형성배경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베트남의 경우 구전문학은 크게 ‘쭈엔 꼬 락-설화·뚝 으엉-속어·까 자오-민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설화는 그 내용에 따라 <꺼이 케 바 찼 프엉 호앙: 복숭아 나무와 봉황새>와 같은 일종의 교훈이나 윤리·도덕적 내용과 <탕 꾸오이: 소년 꾸오이>와 같은 풍자·해학적 내용, <쯔엉 찌: 못생긴 어부>, <쭈 투이 왕자와 미 쩌우 공주>등의 감정·심리적 성격의 설화와 <썸

31)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6, p.203.

32) 박연숙, 앞의 논문, p.38.

뎌 바 투이 뎌: 산정수정>과 같은 천지·민족의 기원 또는 <쩌우 까우: 찌우 까우 열매의 유래>, <반 쫘, 반 자이: 설떡의 유래>등 풍속·습관을 나타내는 전설로 분류된다.³³⁾

계모설화인 <뎌깜>의 경우 베트남에서 가장 대표적인 설화 및 민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신데렐라유형 이야기'의 하나이다. <뎌깜>은 베트남 내 54개 민족 중 가장 다수민족인 비에트족의 설화이자 민담이며, 크메르족, 타이족, 타이족, 메오족 등 베트남 내의 대다수 소수 민족들도 같은 유형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³⁴⁾

베트남은 예로부터 일찍이 유입된 유교사상에 의하여 효와 예와 도덕과 의와 지와 신을 처세의 덕목으로 삼았다. 또한 남존여비 사상이 극심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첩 제도이다. 또한 베트남은 남녀의 역할이 구분되어 남편은 밖에서 경제담당자로서, 부인은 가정에서 내조자로서 가사와 자녀교육, 시부모부양에 전념하는 것이 전통이었으며, 가족 안에 개인이 무시되는 철저한 가족중심주의 사회로서 가정은 가장 혹은 족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구조였다.³⁵⁾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비슷하게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었고, 가장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었다. 개인이 무시되고 가족중심주의의 사회이다 보니,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은 계모와 계모의 소생은 반드시 가족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그렇지 않다면 가족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떠도는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전히 자신이 가족의 일원이 되려면 원래 가족의 일원이었던 전실 자식과 화합을 하거나, 전실 자식을 가정에서 완전히 없애야 했다. 하지만 계모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 않고,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는 전실 자식과는 화합보다는 갈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모의 이런 악행은 베트남

33) 김구양 외, 『베트남』,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0, p.p.72-73.

34) 박연관, 앞의 논문, p.343.

35) 조재현·송정남, 앞의 책, p.p.27-28.

의 전통적인 가족중심주의 사회에 맞춰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계모가 가족이 되기 위해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가족을 해체시킬 수도 있는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남존여비사상으로 첩 제도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로 입에서 입으로 가장 쉽게 퍼질 수 있는 설화를 이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한국과 베트남은 계모설화의 형성배경에 비슷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지리적으로는 두 나라가 떨어져 있지만 중국을 사이에 두고 같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한자문화권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전부터 중국과 교류를 활발히 하고, 사대관계를 맺으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뿐만 아니라, 진한 시대 이후로 중국과 경계를 맞대고 있던 베트남 역시 중국의 영향권에 들면서 지리적인 거리와는 상관없이 같은 문화권 안에 속했기 때문이다.³⁶⁾ 이렇게 두 나라 모두 중국과의 관계에서 같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두 나라의 계모설화의 형성배경에 문자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로 전해지는 것은 중국의 <섭한>³⁷⁾ 이야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6) 양승윤·황규희, 『동남아-중국관계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 p.3.

37) 주경철, 『신데렐라 천년의 여행』, 산처럼, 2005, p.p.89-90.

9C 경 기록된 것으로 전해지는 <섭한>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진한(秦漢) 이전에 오씨(吳氏)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첫 번째 아내가 죽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섭한이라는 딸이 계모의 학대를 받으며 살았다. 섭한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오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물고기 한 마리를 얻었다. 이 물고기는 점차 커져서 그릇 안에서는 키우지 못하고 집 뒤에 있는 연못 속에 넣고 키웠다. 이를 알게 된 계모가 섭한을 멀리 심부름을 보내고 그 물고리를 잡아먹었다. 슬픔에 잠긴 섭한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그 물고기의 뼈를 추려 간직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 준다. 마을 축제가 열린 날, 어머니는 축제에 가면서 섭한에게는 마당의 과실나무를 지키라고 시킨다. 그러나 섭한은 어머니가 나가고 난 다음 물고기뼈에서 청록색 옷과 황금 신발을 얻어 축제에 갔다. 계모와 딸이 의심하는 것을 눈치챈 섭한은 급히 집으로 오다가 신발 한 짝을 떨어뜨렸다. 마을 사람이 그 신을 주워 이웃 나라인 타한국의 왕에게 준다. 그 왕은 이 신발의 주인공을 찾으려고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겨보지만 이 신이 맞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수색을 하게 됐는데, 그러던 중 섭한이 신발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아낸다. 왕은 그녀와 함께 물고기뼈를 거두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녀의 계모와 의붓 언니는 그 직후에 돌에 맞아 죽었다. 마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두 사람을 돌구덩이에 묻고 오녀총(懊女塚)이라고 불렀는데, 마을 사람이 딸아이를 갖고

계모설화인 <콩쥐팥쥐>와 <뫼뫼>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설화가 형성된 나라는 다르지만, 형성배경에서 많은 사회·문화적 유사점을 보여준다.

2) 서사구조와 변신 모티프

어떠한 이야기가 구성이 되려면 그 뼈를 이루는 서사구조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이야기에서 서사구조는 가장 기본이 된다.

계모를 소재로 하는 설화와 서사무가, 고소설 등 다양한 장르에도 또한 보편적인 틀로서의 서사구조를 지니는데, 이것은 계기적 인과성을 지니고 전개된다.³⁸⁾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콩쥐팥쥐>와 <뫼뫼>의 서사구조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콩쥐팥쥐>와 <뫼뫼>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각 설화에서는 등장인물이 모습을 바꾸는 변신 모티프가 등장한다. 설화 안에서 변신을 하게 되는 이유와 왜 그러한 모습으로 변신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이유 등 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변신한 모습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한다.

(1) 서사구조

계모설화의 일반적인 서사전개를 구조화 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조화 해볼 수 있다.

싶을 때 여기에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효험이 있었다. 타한의 왕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자 섭한을 왕비로 삼았다. 1년 동안 왕은 너무 욕심을 부려서 물고기뼈에 빌어 얻은 보석이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해가 바뀌자 물고기뼈는 더 이상 왕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왕은 곧바로 물고기뼈를 해안에 묻고 그 속에 구슬 100석을 숨기고 가장자리를 금으로 돌렸다. 후일 병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물고기뼈 묻은 곳을 파헤쳐서 군자금으로 쓰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물고기뼈가 바다의 조류에 휩쓸려가 버렸다.

38) 이윤경, 「계모형 고소설 연구: 계모설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p.16.

1. 계모의 영입
2. 전실 자식과 계모·이복동생의 갈등 및 학대
3. 전실 자식의 시련극복
4. 계모 및 이복동생에 대한 응징

위에서 제시한 것이 일반적인 서사전개이자 서사구조이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순서가 바뀌어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구조 안에서 여러 가지 모티프가 삽입되고, 빠지기도 하면서 여러 유형의 계모설화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³⁹⁾ 그렇다면 <콩쥐팍쥐>와 <땀감>은 어떠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콩쥐팍쥐>

<콩쥐팍쥐>는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총 19편의 자료⁴⁰⁾가 전해 지고 있다. 19편의 자료를 대표단락을 정해 표로 정리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 '콩쥐팍쥐' 19편의 자료 비교>

계 모 의 영 입	계 모 의 난 제 1	조 력 자 1	팍 쥐 의 모 방	베 짜 기 시 함	계 모 의 난 제 2	조 력 자 2	신 발 분 실	신 부 시 험 · 혼 인	콩 쥐 의 죽 음	가 짜 신 부	콩 쥐 의 환 생· 변 신	가 짜 신 부 의 정 체 폭 로	계 모 와 이 복 동 생 의 정 벌
-----------------------	----------------------------	------------------	-----------------------	-----------------------	----------------------------	------------------	------------------	---------------------------------	-----------------------	------------------	----------------------------------	---	--

39) 이윤경, 앞의 논문, p.17.

40) 박연숙의 앞의 논문의 <콩쥐팍쥐> 유형 19편을 정리한 표를 참고한다.

자료 1	○	○	○	X	X	○	○	○	○	○	○	○	○	○
자료 2	○	○	○	X	X	○	○	X	X	○	X	X	X	○
자료 3	○	○	○	X	X	○	○	○	○	○	○	○	○	○
자료 4	○	○	○	X	X	○	○	○	○	○	○	○	○	○
자료 5	○	X	X	X	X	○	○	X	X	X	X	X	X	X
자료 6	○	○	○	X	X	○	○	○	○	○	○	○	○	○
자료 7	○	X	X	X	X	○	○	○	○	○	○	○	○	○
자료 8	○	○	○	X	X	X	X	X	X	X	X	X	X	○
자료 9	○	○	○	X	X	○	○	○	○	○	○	○	○	○
자료 10	○	○	X	X	X	○	○	○	○	X	X	X	X	X
자료 11	○	○	○	○	○	○	○	○	○	○	○	○	○	○
자료 12	○	○	○	○	○	○	○	○	○	○	○	○	○	○
자료 13	○	○	○	X	X	○	○	○	○	○	○	○	○	○
자료 14	○	○	○	○	○	○	○	○	○	○	○	○	○	○
자료 15	○	X	X	X	X	○	○	X	X	○	X	X	X	X
자료 16	○	X	X	X	X	○	○	X	X	X	X	X	X	X
자료 17	○	X	X	X	X	○	○	○	○	X	X	X	X	X
자료 18	○	○	○	○	○	○	○	○	○	○	○	○	○	○
자료 19	○	○	○	X	X	○	X	○	○	○	○	○	○	○

위의 표를 살펴보면, <자료 1, 3, 4, 6, 7, 9, 13, 19>가 같은 유형으로 묶일

수 있으며, 그 편 수도 8편으로 가장 많다. <자료 7>같은 경우에는 ‘계모의 난제-조력자 1’이 빠지긴 하지만 나머지 단락이 앞의 7편과 동일하기에 같은 유형으로 묶는다. 8편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 <콩쥐팥쥐>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자료 11, 12, 14, 18>이 같은 유형으로 묶일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위의 일반적인 유형에 ‘팥쥐의 모방’과 ‘베짜기 시합’이 더 첨가되어 있다. 여기서 ‘팥쥐의 모방’은 콩쥐가 계모의 난제를 받았을 때 조력자인 소의 도움으로 그 난제를 해결하고, 맛있는 과일과 음식을 가져오니, 계모가 팥쥐에게 콩쥐와 똑같은 행동을 시킨 것이다. ‘베짜기 시합’은 계모와 콩쥐와 팥쥐에게 베짜기 시합을 시키는데, 콩쥐가 어떠한 조건에서도 팥쥐보다 더 훌륭하고, 많은 양의 베를 짜서 계모가 콩쥐를 더 미워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을 말한다.

<자료 2, 15>의 경우 콩쥐의 혼인이 나타나지 않은 점에서 동일하다. 계모의 난제도 횡수만 다를 뿐 들어난다. 하지만 두 설화 모두 ‘콩쥐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콩쥐의 죽음’에서 다시 결말이 갈라지는데 <자료 2>의 경우 계모와 이복동생의 징벌이 이루어지지만, <자료 15>는 계모가 콩쥐가 죽은 것을 기뻐하면서 끝난다. 이것은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보지 못한 결말이다.

<자료 5, 16>은 온전한 이야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단락만 모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설화 유형으로 분리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자료 10, 17>은 계모의 난제가 나오는 횡수에서 차이가 나지만 결말이 같다. <자료 10>의 경우 계모의 난제가 2번 나오는 것은 같지만 조력자는 1번만 등장한다. 그리고 대표단락은 나타나지만 그 안의 내용은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백설공주가 섞인 내용이 들어나서 19편의 설화 중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된다. <자료 17>은 계모의 난제가 1번만 등장한다. 하지만 두 설화 모두 결말이 콩쥐의 혼인으로 끝이 나면서 뒤에 콩쥐의 죽음이나, 콩쥐의 환

생·변신 그리고 계모와 이복동생의 징별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의 내용은 조금 다를지라도 대표단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유형으로 묶인다고 할 수 있다.

<자료 8>은 어느 것과는 묶이지 않고 독자적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콩쥐가 계모의 난제로 힘들어하지만, 조력자가 콩쥐를 도와주고, 계모와 이복동생을 징별하면서 결말을 맺는 내용이다. 중간에 신발 분실이나, 혼인담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위의 19편의 자료 중 가장 일반적인 유형에 속하는 <자료 3>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⁴¹⁾’에 전해지는 이야기의 순차적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옛날 콩쥐와 팠쥐가 함께 살았는데, 콩쥐는 전처소생이고, 팠쥐는 계모 소생이다.
- B. 계모가 콩쥐를 학대한다.
 - b1. 나무호미로 밭매기 - 조력자: 검은 황소
 - b2. 조 석 섬, 벼 석 섬 찢기 - 조력자: 새떼(참새와 까치)
 - b3. 밀 빠진 독에 물 채우기, 밀 빠진 술에 밥하기 - 조력자: 구렁이, 두꺼비
- C. 콩쥐가 외갓집 잔치에 가던 중에 신발을 잃어버린다.
- D. 선비가 신발을 줌고, 신발 주인인 콩쥐와 결혼한다.
- E. 팠쥐가 콩쥐를 질투하여 연못에 빠뜨려 죽이고, 콩쥐 대신 콩쥐 행세를 한다.
- F. 죽은 콩쥐가 연꽃으로 변신하지만 팠쥐가 아궁이에 태워버리자 다시 빨간 구슬로 변신한다.
- G. 할머니의 도움으로 선비와 재회한다.

4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1-9), 1984, p.p.460-466.

H. 선비가 팔쥐를 죽인 후에 고기로 만들고 그 고기를 계모에게 보낸다.

I. 팔쥐의 고기를 먹은 계모는 고기가 팔쥐인 것을 알고 쓰러져 죽는다.

19편의 <콩쥐팍쥐> 자료 중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콩쥐팍쥐>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서사구조 ‘계모의 영입-전실 자식과 계모·이복동생의 갈등 및 학대-전실 자식의 시련극복-계모 및 이복동생에 대한 응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9편의 자료 중 위에 <자료 3>을 대표 유형으로 삼고 본 논문에서는 연구를 진행한다.

② <땀깜>

<땀깜>의 순차적 서사구조⁴²⁾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이조 성종 때 땀과 깜이 살았는데 땀은 전처소생이고, 깜은 계모 소생이다.

B. 계모와 깜이 땀을 괴롭힌다.

b1. 깜이 땀의 고기를 가로챈 - 조력자: 부처

b2. 깜이 땀의 고기를 잡아먹음 - 조력자: 닭, 부처

b3. 검은 콩, 흰 콩 두 가마니 가려내기 - 조력자: 부처, 비둘기

C. 땀이 씻어 놓은 신발 한 짝을 까마귀가 태자의 궁에 떨어뜨린다.

D. 태자가 신발주인을 찾아 태자비로 삼겠다고 발표하고, 땀은 태

42) 전해경, 앞의 논문, p.p.134-136. (전해경의 논문에서는 베트남의 민담집 『Truyen co Vietnam』, p.p.24-30에 실린 <땀깜> 이야기를 번역하여 실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전해경의 논문에 실린 설화를 재인용한다.)

- 자비가 된다.
- E. 계모가 뱀을 죽이고, 꾀를 대신 태자비로 들여보낸다.
 - F. 죽은 뱀이 호아잉호아익새, 죽순, 티나무, 파리의 순서로 변신한다.
 - G. 거지노파의 도움으로 태자와 재회한다.
 - H. 뱀이 꾀에게 거짓정보를 주어 죽게 만든 뒤 그 고기를 계모에게 보낸다.
 - I. 계모는 고기를 맛있게 먹지만, 지나가던 까마귀의 말에 그 고기가 꾀인 줄 알게 된다.

<뱀꾀>의 경우에도 ‘계모의 영입-전실 자식과 계모·이복동생의 갈등 및 학대-전실 자식의 시련극복-계모 및 이복동생에 대한 응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설화임에도 시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각 설화의 서사구조를 살펴보았다. <콩쥐팍쥐>와 <뱀꾀>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서사구조를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서사구조인 ‘계모의 영입’은 <콩쥐팍쥐>와 <뱀꾀>의 경우 전처의 부재로 인해 계모의 영입이 나타난다. 두 설화 모두 계모가 전실 자식을 괴롭히는 악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전실 자식과 계모·이복동생의 갈등 및 학대’에서 <콩쥐팍쥐>는 계모가 콩쥐에게 난제를 주는 것이 나타났는데, <뱀꾀> 또한 뱀이 계모에게 난제를 부과 받게 되는 모습이 비슷하다. 그 후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이 <콩쥐팍쥐>에서 나타났는데, 이복동생인 팍쥐가 콩쥐를 죽이면서 계모뿐만 아니라 이복동생인 팍쥐와도 갈등관계를 형성했다. 콩쥐는 자신에게 난제를 준 계모보다 자신의 목숨을 가져간 팍쥐와 더욱 큰 갈등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땀감>에서 감은 땀이 계모가 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런 식의 방해를 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땀을 죽이지는 않는다. 땀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은 계모이다.

세 번째 서사 구조인 ‘전설 자식의 시련극복’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콩쥐팥쥐>와 <땀감>의 경우 시련이 닥칠 때(계모가 난제를 주는 등)의 경우 조력자가 나타나 콩쥐를 도와준다. 이러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변신을 하면서 콩쥐와 땀은 자신의 시련을 극복해 나간다. <콩쥐팥쥐>에서 콩쥐는 꽃과 구슬로 변신한다. 꽃의 경우, 19편의 자료에 따라 그냥 꽃, 연꽃, 함박꽃 등으로 묘사되고, 구슬도 빨간 구슬로 나오기도 한다. <땀감>의 경우 그 변신하는 횟수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다. 콩쥐의 경우 2번 변신을 하지만, 땀의 경우 4번의 변신을 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인공 세 명 모두 혼인을 하게 되는데, <콩쥐팥쥐>와 <땀감>의 경우 잃어버린 신발이 매개체가 되어 혼인하는 상대를 만나게 된다.

이것은 ‘잃어버린 신발 모티프’는 일반적으로 ‘신데렐라 이야기’의 핵심 모티프가 되는데, 그것을 통해 귀인과 결혼하게 되어 신분상승을 이루거나, 계모의 박해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설화에서 매우 중요한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⁴³⁾ 주인공인 전설 자식의 처지를 한 순간에 마법처럼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이 잃어버린 신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된다.

마지막으로 ‘계모 및 이복동생에 대한 응징’을 살펴보면 <콩쥐팥쥐>의 경우 복수를 해서 계모와 이복동생이 죄를 지은 댓가를 받게 하고 있다. <땀감>의 경우도 <콩쥐팥쥐>와 마찬가지로 그 응징과 복수의 방법은 다르지만, 악인들이 죄값을 치르는 결말을 보이고 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콩쥐팥쥐>의 서사구조는 계모 설화의 유형 중에

43) 권순궁, 「<콩쥐팥쥐전>의 형성과정 재고찰」, 한국고소설학회, <고소설연구> 제 34집, 2012, p.261.

서도 계모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과제제시형 계모 박해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귀인과의 결혼으로 보상이 주어지지만 그것으로 계모와 이복동생의 학대와 갈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더 심화되어 결국에는 전실 자식을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한다.⁴⁴⁾ <땀감>의 경우 <콩쥐팥쥐>와 비슷한 유형으로 함께 '과제제시형 계모 박해담'으로 분리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서사구조를 표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 '콩쥐팥쥐·땀감'의 서사구조 비교>

서사구조	모티프 양상 및 전개		<콩쥐팥쥐>	<땀감>
계모의 영입	전처의 부재로 인한 영입		○	○
전실 자식과 계모·이복동생의 갈등 및 학대	계모의 난제		○	○
	이복동생의 계략		X	○
	전실 자식 죽음	계모에 의한	X	○
		이복동생에 의한	○	X
전실 자식의 시련 극복	조력자 등장		○	○
	혼인	매개체: 신발	○	○
	주인공의 변신		○	○
계모 및 이복동생에 대한 응징	복수		○	○

위의 표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 <콩쥐팥쥐>와 <땀감>은 대개 비슷한 서사구조를 보이며,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티프의 양상과 전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서사구조 '전실 자식과 계모·이복동생의 갈등 및 학대'안의 모

44) 권순궁, 앞의 논문, p.266.

티프 양상 및 전개인 ‘이복동생의 계략’과 ‘전실 자식의 죽음’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이다.

두 설화 모두 세계광포설화인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를 모티프로 비슷한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이러한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가 발견된다.⁴⁵⁾ 즉, 위의 두 설화 모두 각각 지역은 다르지만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화의 서사구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안에서 약간씩 인물이나 사건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설화는 세계 여러 민족이 지니는 보편성과 함께 개개민족의 특수한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개별성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⁴⁶⁾ 세계적으로 곳곳에 퍼진 세계광포설화라고 하더라도 한 이야기 안에서 보편성과 개별성이 이중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지니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변신 모티프

일반적으로 변신은 한 개체의 외적 형상이 초현실적 상황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사건을 말한다. 이러한 변신에 대해서 조동일⁴⁷⁾은 사람의 몸이 원래의 상태와 다르게 바뀌는 경우보다 사람이 사람 아닌 것이 변신하거나 혹은 사람 아닌 것이 사람이 되는 변신이 설화에서 더욱 풍부하게 나타나고 뜻하는 바 또한 한층 깊이 있게 나타낸다고 하면서, 설화에 있어 본격적인 변신은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이 사람 아닌 것으로의 외형적 변화에 의미가 있음을 말하였다.

이러한 변신을 겪는 변신 주체란 실제 변신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인물을

45) 오윤선, 「세계의 신데렐라유형 이야기군 속에서의 <콩쥐팍쥐 이야기> 고찰」, <동화와 번역> 제 11집, 2006, p.275.

46) 박연관, 「베트남의 설화연구 - 考察」,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동남아연구> 제 13집, 2004, p.1.

47) 조동일, 「설화에 나타난 변신의 의미」, <문학과 비평> 제 5집, 창작과 비평사, 1988 봄호.

의미하며 신·인간·자연물⁴⁸⁾을 변신의 세 주체로 설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신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⁴⁹⁾

<표 4 - 변신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⁵⁰⁾

변신 주체	변신 후의 모습	존재 영역
신	A. 인간	이동
	B. 자연물	
인간	C. 신	
	D. 자연물	
자연물	E. 신	
	F. 인간	
신	G. 다른 신	비이동
인간	H. 다른 인간	
자연물	I. 다른 자연물	

위에 표를 살펴보면 열거한 A~I까지의 9가지의 경우는 변신 주체가 경험할 수 있는 변신의 여러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A~F까지는 신·인간·자연물이 서로의 존재 영역과 외적 형상을 넘나드는 변신이라면 나머지 G~I는 각 변신 주체의 존재 영역의 이동이 없는 변신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⁵¹⁾

위의 9가지 경우 중에 <콩쥐팥쥐>와 <뫼까>은 인간이 자연물로 변한 D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세 설화에서 변신을 하는 대상들은 죽음

48) 여기서 '신'에는 종교적인 의미의 신도 포함되며, '자연물' 안에는 동물과 식물은 물론 곤충과 무생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9) 김나영, 「고전소설에 나타난 변신모티프 구현 양상과 의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p.28.

50) 김나영, 앞의 논문, p.28. (논문에서 9가지 항목으로 열거된 것을 본 논문에서는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51) 김나영, 앞의 논문, p.29.

을 겪은 후 환생하여 변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럼 각각의 설화에서 어떤 인물이 어떠한 자연물로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의 <콩쥐팥쥐>를 비롯한 동아시아계의 설화들에서, 인도·게르만계의 설화들보다보다 다층적인 여주인공들의 변신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콩쥐팥쥐>의 19편의 자료 중 변신 모티프가 나타나는 자료는 모두 변신을 하는 대상은 콩쥐이며, 처음에는 꽃으로, 그 다음에는 구슬로 변신을 한다. 모두 2번 변신을 하는 것도 같다. 각 자료에 따라 꽃이 연꽃, 함박꽃이나 구슬이 빨간 구슬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콩쥐가 빠져 죽은 연못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여기서 꽃은 연꽃으로 통일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연꽃과 구슬은 한국 무속과 불교의 상징체계에서 뿐만 아니라 상징체계에서도 재생, 불멸, 영생, 완벽성 등을 의미한다. 이집트에서 연꽃은 해가 뜰 때 피었다가 해질 때에 지는 속성 때문에 태양 숭배 사상과 관련을 맺으면서 불사조와 마찬가지로 '탄생'과 '재생'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성스러운 꽃으로 인식되었다.⁵²⁾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연꽃은 예로부터 세계적으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꽃이었다. 특히 불교에서는 연꽃이 속세의 더러움 속에서 피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을 상징한다고 하여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꽃으로 쓰고 있다.⁵³⁾ 이러한 연꽃과 구슬의 여러 상징성을 생각해 볼 때, 콩쥐가 연못에 빠져 죽은 뒤 연꽃으로 변하고, 다시 구슬로 변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팥쥐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지만, 연꽃과 구슬은 결국 그것들이 상징하는 재생의 의미처럼 결국에는 콩쥐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재생되어 선비와 재회하고, 후에 극락세계로 가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암시를 나타내는 복선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뽕깜>의 호아잉호아익새, 죽순, 티나무, 파리로 무려 4번의 변신을 거친

52)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6, p.474.

5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신하여 태자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반드시 다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겠다는 주인공 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러한 의지가 잘 반영된 모습이 바로 호아잉호아익새와 파리이다. 땀은 호아잉호아익새로 변했을 때 땀은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껌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자신의 존재를 태자에게 알린다. 파리로 변하였을 때도, 노파가 찌우 싸는 것을 도와주면서 태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노력한다.

호아잉호아익새, 죽순, 티나무, 파리와 같이 다양한 변신의 대상이 나타나는 것은 베트남의 농경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친숙한 대상이다. 또한 베트남 민족성 속에 내재하고 있는 애니미즘적 요소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⁴⁾

콩쥐와 땀은 변신을 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그것은 바로 변신을 할 때 주위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제거하려는 방해가 있어도 자신의 의지로 변신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그만큼 어떠한 목적을 이루겠다는 콩쥐와 땀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설화 <콩쥐팥쥐>와 <땀껌>안에서 변신을 하는 대상은 주인공인 콩쥐와 땀 뿐이다.

<표 5 - ‘콩쥐팥쥐·땀껌’의 변신 모티프 양상>

	변신을 하는 대상	변신 한 후의 모습	변신 횟수
<콩쥐팥쥐>	콩쥐(전실 자식)	꽃, 구슬	2번
<땀껌>	땀(전실 자식)	호아잉호아익새, 죽순, 티나무, 파리	4번

54) 전해경, 앞의 논문, p.145.

<콩쥐팥쥐>와 <땀깜>의 변신 모티프를 표로 정리해서 살펴보면 위와 같다. 두 설화 중 변신 횟수에 있어서 <땀깜>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콩쥐보다 2배나 더 많은 변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콩쥐의 변신 모습은 기껏 팥쥐를 괴롭히는 모습만 보일 뿐 전반적으로 직접 말을 하거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땀의 경우에는 변신 하고 나서의 모습은 직접 목소리를 내면서 깜의 행동에 참견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파리로 변했을 때도 태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콩쥐와 땀의 변신은 죽음을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죽음은 ‘통과의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통과의례적인 죽음과 이에 따르는 농경신화적인 의미들이 보다 더 원형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의 통과의례는 대지의 자궁으로, 모든 존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신비로운 여정이 요구되었으며, 나아가 농경이라는 새로운 신성함에 경외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신석기인들의 세계관과 조우 할 수 있었다. 삶과 죽음, 노동의 의례가 함께 혼재되어 있는 설화와 의례들은 거의 농경과 관련되어 있다.⁵⁵⁾

위와 같이 설화 안에서 나타나는 변신의 모습은 아무 의미도 없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 나라의 종교적 영향을 받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기반을 두고, 그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신의 모습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인물의 성격

계모설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주인공인 ‘전실 자식’과 ‘계모’일 것이다.

55) 이혜정, 「<콩쥐 팥쥐>의 농경 신화적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 23집, 2011, p.p.234-235.

이 둘은 설화 안에서 대립관계를 보여주며 중요한 축을 담당 한다. 그리고 계모와 함께 전실 자식을 괴롭히는 ‘이복동생’과 계모가 주는 시련을 주인공이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도 등장한다. 전실 자식, 계모와 이복동생, 조력자의 경우는 <콩쥐팍쥐>와 <뽕감>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전처와 아버지의 경우에는 <콩쥐팍쥐>는 본 논문에서 살피는 유형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뽕감>에서도 전처는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으며 아버지도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 계모가 뽕을 집으로 부를 때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다.’라고 뽕을 피어낼 때 아버지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만 등장한다.

인물들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의 인물유형으로 나누어 본다면 주동 인물과 보조 인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실 자식, 계모, 이복동생은 주동 인물에 속하고, 전처와 아버지, 조력자는 보조인물에 속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이 각 설화 안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주동 인물

각 설화에서 주동 인물은 주인공인 전실 자식과 계모, 이복동생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설화 안에서 ‘전실 자식↔계모, 이복동생’과 같은 갈등관계를 형성하며, 이야기의 전개를 이끌어 나가는 존재로 볼 수 있다.

① 전실 자식

<콩쥐팍쥐>와 <뽕감>에서의 주인공은 ‘콩쥐, 뽕’이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전실 자식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계모와 이복동생과 갈등을 이루는 인물이다.

<콩쥐팍쥐>에 나타나는 콩쥐를 살펴보면, 콩쥐는 한없이 착한 인물이다. 계모가 자신에게 부당한 학대를 가해도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을 슬퍼할 뿐이다.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다가 우연히 하늘에서 내려온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시련을 극복한다. 이것은 19편의 자료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 중 대표 유형으로 삼은 <콩쥐팍쥐>를 살펴보면 다음 설화내용에서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계모가 콩쥐에게는 나무호미를 주어 달밭을 매게 하고, 팍쥐에게는 쇠호미를 주어 모새밭을 매게 했다. 팍쥐는 밭을 먼저 매고 집으로 돌아간다. 밭을 맬 때 호미가 부러지자 콩쥐가 울고 있으니, 하늘에서 검은 황소가 내려와서 밭을 갈아주었다.⁵⁶⁾

결말에서 또한 자신을 죽인 팍쥐에게 직접 복수를 하기 보다는 선비에게 그 사실을 알려 선비가 콩쥐 대신 팍쥐에게 복수를 하게 만든다. 결말에서도 콩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시련을 극복하는 모습과 마지막 결말의 모습에서 볼 때, 콩쥐는 소극적이고, 자신에게 불합리한 일이 생겨도 속으로 참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무언가 행동을 할 때도 남자의 뒤에서 지켜 볼 뿐 직접 나서지 않는다. 이것은 조선시대 유교 사상의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처녀는 할머니에게 선비를 불러 아침을 먹도록 부탁했다. 아침을 먹으로 온 선비가 밥상에 놓인 젓가락이 짹짹이라 곤란해 하자 처

5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1-9), 1984, p.p.460-461. (뒤에서 인용되는 <콩쥐팍쥐> 19편의 자료 중 대표유형의 내용은 지금 인용되는 설화와 같은 것을 인용하므로, 뒤에는 따로 각주를 달지 않도록 한다. 특별히 다른 자료가 사용되면 그 때는 따로 각주를 달도록 한다.)

너는 “색시 바뀐 것은 모르고 젓가락 바뀐 것은 아나보다.”라고 한다. 선비가 처녀를 쳐다보니 콩쥐였다. 콩쥐는 선비에게 그간의 일을 설명하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19편의 자료 중 ‘전북 완주군 고산면’⁵⁷⁾에서 전해지는 설화의 콩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름도 주인공이 ‘팔조지’이고, 이복동생이 ‘콩조지’이다.

팔조지의 신랑이 콩조지를 죽이자, 팔조지는 콩조지의 고기로 고깃국을 끓이고, 콩조지의 고기도 찢어서 넣는다. 그리고 그 국을 계모에게 보낸다. 계모는 국을 맛있게 먹지만, 그 고기가 자신의 딸인 콩조지인 것을 알고, 탄식을 하며 울었다.⁵⁸⁾

위의 설화에서는 콩조지(팔쥐)를 죽이는 것은 팔조지(콩쥐)의 신랑이지만, 적극적으로 그 고기로 국을 끓이고 고기를 찢어서 계모에게 보내는 것은 팔조지(콩쥐)이다. 직접 전면에 나서서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응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자료의 팔조지(콩쥐)는 조금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땀의 경우 설화 전반부에서는 소극적이고,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

계모는 땀과 찜에게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을 언니로 삼겠다고 말한다. 찜은 땀이 잡은 고기를 가로챘다. 땀은 찜이 고기를 가로챈 사실을 알고 울고 있었는데, 부처가 나타나 한 마리 남은 뽕고기를 연못에 키우라고 하였다.⁵⁹⁾

5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5-2), 1980, p.p.538-543.

5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5-2), 1980, p.543.

59) 전해경, 앞의 논문, p.134. (뒤에서 인용되는 설화의 내용은 지금 인용되는 설화와 같은 것을 인용하므로, 뒤에는 따로 각주를 달지 않도록 한다.)

위의 내용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땀은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낚이 가로채는 것을 앞에도 불구하고, 낚에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추궁을 하거나 그녀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슬퍼하고, 울고 있을 뿐이다. 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부처가 나타나서 그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땀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부처의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극복해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땀의 모습은 설화의 후반부로 가면 달라진다. 특히 낚에 의해 죽고 난 뒤 호아잉호아익새로 변신하여 직접 낚의 앞에 나타나 그녀의 행동에 참견하고, 태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태자의 옷을 빨고 있는 낚에게 호아잉호아익새가 “내 남편의 옷을 깨끗이 빨아라. 울타리에 널지 말고 막대에 널어라. 내 남편 옷 찢길라!”라고 지저귀면서 말했다. 태자가 이 소리를 듣고 “호아잉호아익! 나의 부인이 맞으면 나의 소매 속으로 들어오고 아니면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새가 태자의 소매 속으로 들어왔다. 태자는 소매 속으로 들어온 새를 애지중지 키운다.

……<중략>……

태자는 노파가 찌우를 능숙하게 싸놓은 것을 보고 ‘마치 옛날 아내의 솜씨와 같은데 흑시나……’하니 땀이 파리가 되어 찌우 앞에 표시를 해주는데 태자가 부채를 들어 파리를 내쫓으니 노파는 더 이상 찌우를 싸지 못하고 양녀 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대로 태자에게 말했다.

땀은 낚의 행동에 참견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노파의 집에 태자가 찾아왔

을 때 태자가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파리로 변하여 노파의 찌우 싸는 것을 직접 도와주면서 자신의 존재를 태자에게 알린다. 물론 인간의 모습으로 태자의 앞에 나서서 찌우를 싸는 것은 아니지만 파리의 모습으로 노파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제시를 해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데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이다.

땀의 이러한 모습은 설화의 결말 부분인 계모와 이복동생 감에게 원수를 갚는 장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땀은 감에게 “끓는 물에 목욕하니 피부가 하얗고 머리가 길어졌다.”고 말한다. 감이 그대로 하여 뜨거운 물에 데어죽고 땀은 감의 고기에 소금을 쳐서 계모에게 보낸다.

땀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계모와 감에게 복수를 한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땀은 감에게 복수를 위해 감이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거짓 정보를 흘리고, 감은 그대로 행했다가 죽음을 맞게 된다. 후에 감의 시체는 땀은 직접 소금을 쳐서 계모에게로 보낸다. 이런 땀의 모습은 위에서 살펴본 <콩쥐팍쥐>의 자료 중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전해지는 콩쥐의 결말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땀의 성격이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전반부의 계모와 감의 학대와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큰 위험이나 위기를 느끼지 못했으나, 직접 계모와 감에 의해 목숨을 잃고 난 뒤에는 그들로부터 큰 위험성과 위기를 느끼고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땀이 설화 전반부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두 설화에서 여주인공들은 각 나라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낮고, 그 낮은 지위조차도 잃을까봐 어떠한 부당한 일이 생겨도 겉으로 티내지 않고,

속으로 참는 전형적인 유교적 여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속으로 삭히며 전진공공하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② 계모

계모는 두 설화 모두 주인공인 전실 자식을 괴롭히면서 갈등관계를 형성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콩쥐팥쥐>와 <땀값>의 계모는 전처의 부재에 의해 자신의 자식을 데리고 등장하게 된다.

<콩쥐팥쥐>의 19편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콩쥐와 팥쥐를 제외하고는 계모, 아버지 등으로 불린다. 하지만 ‘경남 밀양군 삼랑진읍⁶⁰⁾’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는 아버지는 ‘최만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모는 배씨라고 성을 명시해주고 있다.

<콩쥐팥쥐>의 계모는 콩쥐에게 난제를 주는데, 그 난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모가 콩쥐에게는 나무호미를 주어 달밭을 매게 하고, 팥쥐에게는 쇠호미를 주어 모새밭을 매게 했다.

……<중략>……

계모는 외갓집에 잔치가 열리자 팥쥐만 데리고 가면서 콩쥐에게는 조와 벼 석 섬을 짚어 놓고, 밀 빠진 독에는 물을 채워 놓고, 밀 빠진 손에는 밥을 해 놓고 오라고 하였다.

6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8-8), 1981, p.p.102-111.

<콩쥐팥쥐>에서의 난제를 살펴보면 계모가 콩쥐에게 준 난제는 전실 자식인 콩쥐를 괴롭히고, 어떠한 잔치에 오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한 난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모의 난제는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콩쥐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이 큰 난제는 아니다.

가정에 새로 편입된 계모는 확실하지 않은 자신의 가정에서의 자신에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싶어 했고, 그렇기 위해서는 전실 자식인 콩쥐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계모의 난제의 난이도로 볼 때 계모는 전실 자식인 콩쥐를 미워하고 괴롭히기는 했지만, 죽이거나 해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화 초반의 난제를 통하여 계모는 콩쥐와 대립·갈등관계를 보인다. 그 후에 콩쥐와 대립·갈등관계를 보이는 것은 계모에서 팥쥐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모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도록 한다.

계모는 선비가 보낸 고기가 팥쥐 인 줄 모르고 먹었다. 후에 이 사실을 알고 데굴데굴 구르다가 쓰러져 죽었다.

‘계모와 이복동생의 징벌’의 단락이 나오는 <콩쥐팥쥐>의 19편의 자료를 살펴보면 계모는 선비가 보낸 고기를 맛있게 먹다가 그 것이 자신의 딸인 팥쥐인 것을 알고는 결국은 쓰러져 죽게 된다. 이러한 계모의 죽음은 착한 콩쥐를 괴롭힘으로써 받게 되는 벌로 이것은 설화의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결말을 보여준다.

<뽕깜>에서 나타나는 계모도 난제를 주는 모습은 <콩쥐팥쥐>의 계모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태자가 신발주인을 찾아 태자비로 삼겠다는 명을 내린다. 이 소식을 듣고 계모는 깜을 데리고 궁에 가면서 깜에게 궁에 오려면

검은 콩과 흰 콩이 섞인 두 가마니를 가려내고 오라고 한다. 그러자 부처가 나타나 두 마리 비둘기에게 검은 콩과 흰 콩을 대신 가려내도록 한다.

<콩쥐팥쥐>에서 계모는 콩쥐가 어떠한 잔치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난제를 주고, <뽕감>의 경우도 신발주인을 찾아 신부로 삼겠다는 태자의 명을 듣고 궁에 가면서 뽕이 궁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난제를 부과한다.

난제를 부과하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뽕감>의 계모는 뽕의 목숨을 빼앗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계모는 아버지의 증병을 핑계로 뽕을 집에 오도록 만든다. 그리고 집에 온 뽕에게 까우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오라며 시킨 뒤 나무를 베어서 뽕이 나무에서 떨어져 죽게 한다. 계모는 뽕 대신 감을 태자비로 들여보낸다.

<콩쥐팥쥐>의 경우 전설 자식을 죽이는 것은 이복동생인 ‘팥쥐’였다. 하지만 <뽕감>에서는 계모가 직접 뽕을 죽인다. 이러한 면이 <콩쥐팥쥐>의 계모 보다 잔인한 면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사랑했던 딸, 감의 고기를 먹게 되는 끔찍한 상황을 맞는 권선징악의 결말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뽕이 보낸 감의 고기를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게 먹는 계모에게 지나가던 까마귀가 “에미가 자식의 고기를 먹는구나.”라고 말한다. 그래서야 계모는 바닥에 있는 감의 머리를 보고 비로소 자신이 자식의 고기를 먹은 줄 알게 된다.

<콩쥐팥쥐>의 계모가 직접적으로 콩쥐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죽음을 맞는 것에 비하면 <땀감>의 계모의 최후⁶¹⁾는 계모가 저지른 악행에 비하면 댓가를 거의 치루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죽음을 맞이하거나 땀이 태자비로서 어떤 형벌을 내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서 친자식의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는 것은 후에 안고 살 죄책감의 크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충분히 권선징악의 결말로 볼 수 있다.

③ 이복동생

두 설화에서 이복동생들이 전실 자식인 주인공을 괴롭히는 행위는 크게 세 가지이다. 계모와 함께 난제를 주어 괴롭히거나, 직접 전실 자식을 해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전실 자식이 환생한 후 변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콩쥐팥쥐>에서 난제를 내는 것은 계모이고, 팥쥐는 그 후에 콩쥐를 죽이고, 콩쥐 대신 콩쥐 행세를 하며 선비와 산다. 팥쥐는 계모보다 한층 더 잔인한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선비의 아내 자리도 탐내는 모습을 보인다.

팥쥐는 콩쥐를 연못으로 띄워내 밀어서 빠뜨려 죽인다. 콩쥐를 죽인 뒤 팥쥐는 콩쥐 대신 콩쥐 행세를 하며 선비와 함께 산다. 선비가 콩쥐와 외모가 다른 것을 추궁하지만, 팥쥐는 그냥 둘러대고 만다.

그래서 콩쥐를 죽인 뒤 팥쥐는 콩쥐 대신 선비의 아내노릇을 하면서 살아 가고, 자신을 의심하는 선비에게 핑계를 대며 둘러댄다. 콩쥐가 죽은 뒤 이후에 변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도 그것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61) 박연관의 「‘콩쥐팥쥐’와 ‘Tam Cam’비교 연구」에서 계모는 최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콩쥐가 빠져 죽은 연못에서 꽃이 피어난다. 그것을 본 선비가 꽃을 꺾어와서 문위에 놓아둔다. 꽃은 선비를 보면 춤을 추지만, 팔쥐를 보면 머리를 쥐어뜯으며 팔쥐가 문을 지나다닐 때 마다 괴롭힌다. 팔쥐는 참지 못하고 꽃을 아궁이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팔쥐는 콩쥐가 죽은 연못에서 핀 꽃이 선비에게는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자신은 계속해서 머리를 쥐어뜯는 등 괴롭히자, 꽃을 제거해버린다. 팔쥐가 꽃을 태워버린 행동을 표면적으로 자신을 괴롭힌 것에 대한 분풀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콩쥐의 환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꽃의 행동(선비에게는 우호적이고 팔쥐에게는 적대적인 것)에서 자신이 콩쥐를 죽인 사실이 밝혀질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팔쥐의 최후는 어땠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콩쥐는 선비에게 자신의 원수를 갚아 줄 것을 부탁하고, 선비는 팔쥐를 죽여서 고기로 만들고, 그것을 계모에게 보낸다.

<콩쥐팔쥐>의 19개의 자료에서 ‘계모와 이복동생의 징벌’이 나타나는 설화는 팔쥐를 어떻게 죽이느냐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결국 팔쥐가 콩쥐를 죽인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팔쥐는 콩쥐의 부탁을 받은 콩쥐의 배우자에게 죽임을 당한 뒤 고기로 만들어져서 계모에게 보내진다. 이런 팔쥐의 죽음은 자신이 콩쥐를 죽인 것에 대한 대가로 나쁜 짓을 하면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다는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뽕감>에서 이복동생인 감의 경우는 뽕이 계모가 낸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계모는 뽕과 감에게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을 언니로 삼겠다고

한다. 낀은 땀이 낀은 고기를 가로챈다. 땀이 울고 있자 부처가 나타나 한 마리 낀은 봉고기를 연못에 키우라고 한다. 낀은 땀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한 마리 낀은 봉고기도 잡아먹는다.

계모가 고기를 많이 낀을 사람을 언니로 삼겠다고 하자, 낀은 땀이 낀은 고기를 가로채고, 한 마리 낀은 고기도 잡아먹으면서 땀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콩쥐팍쥐>에서 팍쥐의 경우 콩쥐를 직접 죽이기는 했지만, 계모가 낸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낀의 경우 직접 땀을 죽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난제를 해결하려는 땀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팍쥐와 낀은 서로 이렇게 뒤바뀐 행동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팍쥐와 낀의 차이점이다.

낀은 죽은 땀 대신 땀 행세를 하며 태자비로 궁에 들어간다.

하지만 땀이 죽은 뒤 태자비 행세를 하며 땀 대신 태자비로 살아가는 것은 팍쥐와 낀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또한 땀이 죽은 뒤에 변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도 계속해서 제거하는 모습도 팍쥐와 낀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태자가 외출한 사이 낀은 태기가 있는 것을 핑계로 호아잉호아 익새를 잡아먹는다. 그리고 새털은 버려버린다. 태자가 새털을 버린 곳에 죽순이 자라있는 것을 보고 정성을 다해 돌보았다. 낀이 이 사실을 알고 죽순을 잘라서 먹고, 죽순 껍질은 큰 길 삼거리에 버렸다.

땀은 총 4번의 변신을 거치는데, 그 때 마다 낀은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콩쥐팥쥐>에서 꽃은 선비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팥쥐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직접 자신이 목소리를 내서 개입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땀의 경우 호아잉호아익새로 변신하여 감에게 직접 말을 하면서 참견을 한다. 게다가 태자의 소매 속으로 들어가 지내기까지 하니 감의 불안감은 매우 컸을 것이다. 그래서 감은 태자가 외출한 틈을 타 호앙익호아익새를 아예 잡아 먹어버린다.

하지만 새털을 버린 곳에서 다시 죽순이 자라나게 되고, 이것을 태자가 정성껏 돌보게 되자 다시 감은 호아잉호아익새를 제거했던 것처럼 죽순을 잘라서 먹어버리고, 죽순 껍질은 큰 길 삼거리에 버려버린다. 감은 이 대상들을 죽여서 그냥 버리는 거나 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타날 수 없도록 자신이 그것들을 먹어버림으로써 확실히 제거를 해버린다. 이러한 감의 행동은 자신의 계모가 땀을 죽이고, 자신이 땀 대신 태자비로 들어온 엄청난 사실을 태자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은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한 감의 최후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땀이 감에게 “끓는 물에 목욕하니 피부가 하얗고 머리가 길어졌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감은 그대로 하여 뜨거운 물에 데어 죽었다. 땀은 죽은 감의 고기에 소금을 쳐서 계모에게 보낸다.

감은 땀에게 속아 끓는 물로 목욕을 하다가 결국 그 물에 데어서 죽게 된다. 땀은 감을 고통 없이 한 번에 죽게 하는 방법보다 가장 고통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감에게 복수를 한다. 이러한 감의 최후를 볼 때 <콩쥐팥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는 인과응보적인 측면과 악한 인물이 벌을 받는 권선징악의 결말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결말이다.

(2) 보조 인물

전실 자식, 계모, 이복동생이 주동인물이었다면, 전처와 아버지, 조력자는 설화의 보조인물에 해당한다. 이들은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공인 전실 자식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주변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을 말한다.

① 전처

<콩쥐팍쥐>의 경우 ‘계모의 난제 1’에 ‘조력자 1’로 등장하는 ‘소’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말이 있다. 그러한 내용이 드러난 설화 자료 중 하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하늘에서 꼬부랑 소가 내려오는데, 살펴보니 그것이 팔조지(콩쥐)
죽은 어머니의 뉘이었다.⁶²⁾**

이것은 자신의 딸이 걱정된 어머니가 계모에게 구박받는 자신의 딸을 도와주기 위하여 소의 모습으로 나타나 계모의 난제를 해결해준다. 거의 대부분의 <콩쥐팍쥐> 19개의 자료의 전처는 설화 처음에 죽음을 맞이해서 역할 비중 자체가 크지 않다.

<뽕감>의 경우에도 설화 첫 부분에 전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계모의 영입이 바로 이루어져 그 역할도 나타나지 않고, 본 논문에서 인용한 내용에서는 조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언급도 나오지 않는다.

6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5-2), 1980, p.543.

② 아버지

<콩쥐팥쥐>와 <땀감>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콩쥐팥쥐>의 경우 19편의 자료 중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경남 밀양군 삼랑진읍’에서 전해지는 자료에서 아버지의 이름까지는 명시되기도 하지만, 그 역할은 거의 없다.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도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은 계모·팥쥐와 콩쥐의 갈등·대결구도에서 아버지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모와 팥쥐가 콩쥐를 괴롭힐 때 유일한 혈육인 아버지가 콩쥐를 감싸주거나 콩쥐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그저 상황에 참견하지 않고 방관하는 방관자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땀감>의 경우에도 아버지는 단 한 번 등장한다.

계모는 아버지의 증병을 핑계로 땀을 집에 오도록 만든다. 그리고 집에 온 땀에게 까우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오라며 시킨 뒤 나무를 베어서 땀이 나무에서 떨어져 죽게 한다.

바로 계모가 땀을 궁궐 밖으로 불러내기 위한 핑계로 아버지의 증병을 이야기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땀의 아버지가 죽은 것은 아닌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하지만 계모와 감이 땀에게 해를 가할 때도 콩쥐의 아버지 처럼 역시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는다. 계모와 감을 말리거나 땀을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위의 콩쥐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방관자의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조력자

조력자들은 전실 자식인 주인공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준다. 조력자의 모습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 설화마다 다양한 모습의 조력자 들이 나타나고, 설화 안에서도 여러 조력자들이 나타난다.

<콩쥐팥쥐> 19편의 자료를 살펴보면 조력자의 등장 횟수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자료에서 조력자가 등장한다. 19개의 자료 중 대표유형으로 삼은 <콩쥐팥쥐>에서는 조력자로 검은 황소와 새똥(참새와 까치), 구렁이, 두꺼비, 할머니가 나온다. 어떤 난제에 어떤 조력자가 나오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나무호미로 밭매기 - 조력자: 검은 황소
2. 조 석 섬, 벼 석 섬 짚기 - 조력자: 새똥(참새와 까치)
3. 밀 빠진 독에 물 채우기, 밀 빠진 술에 밥하기 - 조력자: 구렁이, 두꺼비
4. 배우자와의 재회 - 조력자: 할머니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조력자는 소와 새 똥이다. 그리고 구렁이, 두꺼비, 선녀가 등장하는 자료도 있다. 배우자와의 재회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이웃이 등장하기도 한다.

먼저 조력자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를 살펴보면 소는 우리 농경사회에서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동물이다. 뿐만 아니라 기계가 없던 옛날에는 소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기도 했고, 자식들이 시집이나 장가를 가면 소를 팔아 그 밑천을 대기도 하는 중요한 재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소의 의미는 매우 컸으며 중요했다. 그래서 밭을 해야 하는 난제에서의 조력자가 검은 황소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농촌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조력자인 소는 앞의 계모 부분에서 미리 언급했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는 콩쥐의 생모가 소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와 자신의 딸인 콩쥐를 도와주었다고 채록되어 전해진다.

잔치에 가게 될 일이 생기자 콩쥐가 미웠던 계모는 콩쥐에게 절대 해결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고 팔쥐만 데리고 잔치에 가버린다. 하지만 또 다시 조력자인 구렁이와 두꺼비, 새 떼(참새와 까치)의 원조로 무사히 계모의 난제를 해결한다. 19개의 자료 중 대표 유형으로 삼은 <콩쥐팥쥐>에는 구렁이와 두꺼비, 새 떼가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나타나는 설화들도 있다. 지금은 대표 유형으로 삼은 <콩쥐팥쥐>에 들어나는 구렁이와 두꺼비, 새 떼를 살펴보도록 한다. 조력자로 나타나는 동물들은 각각 다들 의미를 가지고 설화에 나타난다. 이것은 <콩쥐팥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조력자로 나온 동물들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먼저, 구렁이는 보통 뱀보다 훨씬 큰 뱀으로서 신성시되었던 동물이다. 구렁이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많으며,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신통력이 대단한 동물⁶³⁾로 나타나기도 한다.⁶⁴⁾ 구렁이는 우리나라 설화와 민담에서 신통력이 광대하고 이를 해친 사람은 보복을 받고 도움을 주면 보답하는 동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⁶⁵⁾

두꺼비는 <삼국유사> 권3의 전후소장사리조(前後所將舍利條)에도 지장법사가 가져온 사리와 가사를 지키는 동물로 기록되어 있다. 두꺼비는 나라의 흥망을 나타내는 조짐으로, 또는 불보(佛寶)를 보호하는 신령스런 동물로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두꺼비는 의몽스럽고 지혜 있는 동물로 인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꺼비는 많은 우화·민담·민요 등의 주인공이 되어서 의몽하고 둔하면서도 슬기롭고 의리 있는 동물로 형상화되고 있다.⁶⁶⁾

63) 어린 소년에게 도움을 받았던 구렁이가 소년이 장가가는 길을 따라가서 신랑을 죽이려고 숨어 있던 간부를 찾아내어 신랑을 구출해 주었다는 이야기도 널리 전승되는 민담이다.

64)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p.89.

6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6-6), 1984, pp.340-341.(구렁이에 관한 이야기는 각 주제 소개한 것 외에도 여러 편이 더해진다. 구렁이에게 도움을 줘서 구렁이가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와 구렁이에게 해를 입히려하려던 집안을 망하게 한 구렁이의 이야기까지 이야기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며, 구렁이의 신이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6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7-17), 1984, p.p.355-357.(이 이야기는 두꺼비를 도

까치는 반가운 사람이나 소식이 올 것을 알리는 새로서, 그리고 부자가 되거나 벼슬을 할 수 있는 비방을 가진 새로서 우리 민족에게 인식되어 왔다.⁶⁷⁾전설뿐만 아니라 까치에 관한 설화는 많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까치의 보은>등이 있다. 이와 같이 설화에는 까치가 은혜를 알고 사람의 위기를 구해주는 새로 나타난다.⁶⁸⁾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구렁이, 두꺼비, 까치 모두 우리나라에서 신성시 여겨던 동물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인물인 콩쥐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콩쥐팍쥐>에서 나타난다. 콩쥐가 이 동물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준 것은 아니지만, 모두 신통력을 지닌 동물들로 선한 인물인 콩쥐가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도움을 베푼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새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화나 민담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 농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친숙한 동물로써, <콩쥐팍쥐>에서는 까치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조력자의 역할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동물이 아닌 조력자로는 선녀가 등장하는 설화도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조력자 소와 마찬가지로 콩쥐의 생모가 선녀의 모습으로 콩쥐를 도와주러 내려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선비와 다시 재회를 하게 된다. 할머니는 콩쥐가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선비와 다시 만나게 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콩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뽕감>의 경우 조력자로 부처와 닭, 비둘기, 노파가 나온다. 부처는 신이한 능력을 가진 초인적 존재로 등장한다.

계모는 뽕과 감에게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을 언니로 삼겠다고

와주고 죽음을 면한 새댁의 이야기이다. 도움을 받은 두꺼비가 은혜를 갚고 도움을 주는 이야기로, 이 외에도 두꺼비에 관한 이야기가 수십 편이 전해진다.)

67) 김성배, 『한국의 금기어·길조어』, 정음사, 1975, p.115.

6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7-4), 1980, p.157.(이 이야기는 까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이다. 까치에 관한 이야기는 각주에 소개한 것 외에 여러 편이 더 전해진다.)

한다. 짬은 땀이 잡은 고기를 가로챈다. 땀이 울고 있자 부처가 나타나 한 마리 남은 봉고기를 연못에 키우라고 한다. 짬은 땀이 나가기 기다렸다가 한 마리 남은 봉고기도 잡아먹는다.

봉고기가 없어진 것을 알고 울고 있는 땀에게 닭이 봉고기의 뼈를 찾아다 주고, 부처가 뼈를 4등분 하여 침대의 네 다리 밑에 묻고 백일 후에 파보라고 말해준다.

부처는 조력자로 등장하여 땀에게 해야 할 행동을 가르쳐주고, 땀이 그 행동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부처의 경우 <콩쥐팍쥐>의 동물들처럼 본인이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조언을 해줌으로써 땀 스스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하도록 한다.

봉고기의 뼈를 찾아다 주는 닭은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베트남에서는 친숙하고 유익한 동물로 조력자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래자가 신발주인을 찾아 래자비로 삼겠다는 명을 내린다. 이 소식을 듣고 제모는 짬을 데리고 궁에 가면서 짬에게 궁에 오려면 검은 콩과 흰 콩이 섞인 두 가마니를 가려내고 오라고 한다. 그러자 부처가 나타나 두 마리 비둘기에게 검은 콩과 흰 콩을 대신 가려내도록 한다.

부처는 한 번 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상황이 <콩쥐팍쥐>의 상황과 비슷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부처는 직접 나서지 않고, 비둘기⁶⁹⁾를 시켜서 대신 그 일을 해결하도록 한다. 부처는 총 2번 조력자로서 땀 앞에 나타나는데 전적으로 앞에 나서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 초인적인 존재로서의 부처를 신성시

69)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비둘기는 영혼 또는 성령의 상징으로, 가끔 천계의 방문이나 승천, 성령 강림 등을 표현한다. 특히 흰 비둘기는 성인의 혼에 비유되어, 순교자의 입에서는 이것이 튀어나온다고 믿었다. 아마 <땀감>에서의 비둘기도 부처의 상징으로 조력자를 도와주는 부처의 분신 같은 역할로 생각된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 날 거지 노파가 티나무 아래를 지나다가 기도를 하니 티열매가 떨어져 쌀 항아리 속에 들어갔다. 티열매가 쌀 항아리 속에서 익자, 땀이 튀어 나오고, 땀의 그간 사정을 들은 노파는 땀을 양녀로 삼는다. 노파 남편의 제일이 되자 땀은 태자를 초대하도록 노파에게 부탁한다.

마지막 조력자는 거지 노파이다. 노파는 티열매가 변한 땀에게 그간의 사정을 삼고 그녀를 양녀로 삼는다. 땀이 잠시나마 기댈 수 있는 존재로 옆에 있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콩쥐팥쥐>의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태자와 땀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콩쥐팥쥐>와 <땀감>에 나오는 조력자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 ‘콩쥐팥쥐·땀감’에 나타나는 조력자>

	조력자
<콩쥐팥쥐>	검은 황소, 새 떼(참새와 까치), 두꺼비, 구렁이, 할머니 (전승되는 지역의 자료에 따라 선녀와 이웃도 등장)
<땀감>	부처, 닭, 비둘기, 노파

<콩쥐팥쥐>에는 다양하게 많은 조력자가 등장하고, 신이한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의 조력자가 등장하는 것은 <땀감>이다. <콩쥐팥쥐> 경우 19개의 자료에서 모두 조력자가 등장한다. 조력자의 등장횟수와 그 다양함이 조금씩 차이를 가질 뿐이다.

지금까지 각 설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았다. 전설 지식, 계모, 이복동

생, 조력자는 모두 각 설화에서 등장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두 설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은 모두 비슷하게 나타난다. 전설 자식을 해하는데 <콩쥐팥쥐>는 이복동생인 팥쥐가 나서고, <뫼뫼>은 계모가 나서는 것과 같은 행동에서의 차이를 보인다. 특별히 구분되거나 특이하다고 할 만 한 점은 눈에 띄지 않고, 비슷한 성격의 인물들이 각자의 역할을 설화 안에서 수행한다. 또한 전처와 아버지도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두 인물은 <콩쥐팥쥐>와 <뫼뫼>에서는 거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비중이 매우 작다. 설화 안의 다른 인물들의 언급을 통해서만 드러날 뿐이다.

4) <콩쥐팥쥐>와 <뫼뫼>의 공통점과 차이점

앞의 서사구조와 변신 모티프, 인물의 성격측면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콩쥐팥쥐>와 <뫼뫼>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하겠다.

(1) 공통점

<콩쥐팥쥐>와 <뫼뫼>의 첫 번째 공통점은 두 설화 모두 ‘계모 박해담’에 속하는 설화라는 것이다. 모두 서사의 중심축이 되는 것은 계모의 영입과 함께 계모의 박해에서 빚어지는 전설 자식들과의 갈등이다. 이러한 ‘계모 박해담’이 주를 이루는 까닭은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사상으로 인해 남성의 지위가 우월한 가운데, 남성은 배우자와 사별을 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재가를 할 수 있었고, 아내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첩을 들이는 등 계모의 영입이 매우 자유로웠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첩 제도로 인하여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서 계모의 영입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계모 박해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모의 영입이 빈번하고, 자유로

웠던 것을 ‘계모 박해담’이 형성된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 <콩쥐팥쥐>와 <뽕깜>에서는 계모의 난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뽕깜>은 한층 더 나아가 전설 자식이 계모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다. 두 설화는 이렇듯 약간씩 계모의 박해인 난제를 주는 유형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박해가 주를 이루는 계모 설화의 유형 중 ‘계모 박해담’에 속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두 번째 공통점은 <콩쥐팥쥐>와 <뽕깜>에는 모두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등장한다.

<콩쥐팥쥐> 19편의 자료를 보면, 약간씩 조력자의 모습이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횃수와 그 다양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들은 모두 주인공인 콩쥐가 계모의 난제를 해결하지 못 할 때 나타나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여 도와준다. 어느 하나의 조력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난제마다 필요한 조력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뽕깜>의 경우에는 부처라는 신성한 존재가 조력자로 등장한다. 하지만 부처는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는 않는다. 직접 행동으로 뽕을 도와주는 조력자는 닭과 비둘기로 볼 수 있다. <콩쥐팥쥐> 19편의 자료 중 혼인 후 콩쥐가 죽음에 이르는 단락을 가지는 자료들과 <뽕깜>은 모두 마지막에 조력자인 할머니와 노파의 도움으로 배우자와 다시 재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이 각 설화의 주인공들은 조력자로 인해 하나하나 시련을 극복해 나가고, 자신의 행복에 단계적으로 조금씩 다가가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변신 모티프’이다. 두 설화에 나타나는 변신 모티프는 인간의 모습에서 자연물로 변하는 모습이다.

이는 환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환생은 개체가 죽었다가 모습을 바꿔 다른 개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점에서 재생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의미에서 변신에 포함된다.⁷⁰⁾ 콩쥐와 뽕은 모두 죽음을 거친 후에 변신을 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

70) 이승우, 「여우등장 설화의 변신 및 생성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p.22.

난다.

이들의 환생과 관련한 변신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가진 민족에서 환생의 관념은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종교적으로 이러한 요소는 신화나 설화에 일정하고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⁷¹⁾

그래서 각 설화의 주인공들은 환생을 통한 변신으로 인해, 콩쥐와 뱀은 자신들의 한과 억울함을 알리고, 그 대상에게 응징을 가한다. 앞에 주인공들의 행동은 모두 변신 후의 이야기이다. 환생을 통한 변신이 없었다면 설화의 후반부 이야기도 없었을 것이다. 변신을 한 후의 이야기가 후반부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들은 각각 변신을 통하여 설화 후반부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공통점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은 ‘신발 모티프’이다. 두 설화에 나타난 신발은 주인공인 콩쥐와 뱀을 배우자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하나의 모티프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신발 모티프는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에서도 중심이 되는 중요한 모티프라는 것은 앞서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베트남이 불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을 생각했을 때, 신발이 가지는 불교적 의미도 살펴볼 수 있다.

신발이 불교에서 일찍부터 신표 혹은 부절을 의미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우선 불교에서의 신발에 대한 의미는 달마대사의 신발과 관련해 전해지는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달마대사는 중국을 떠나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기 위해 신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적 의미에서의 신발은 단순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신성한 의미를 지닌다. ⁷²⁾

<콩쥐팍쥐>와 <뱀감>에서도 신발은 콩쥐와 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의미가 국한되지 않는다. 콩쥐와 뱀의 배우자가 되는 선비와 태

71) 김헌선·최장운, 「〈신데렐라Cinderella〉와 〈콩쥐팍쥐〉이야기의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시민인문학>, 2004, p.273

72) 이기대, 「〈콩쥐팍쥐〉의 인간상과 불교적 세계관」, <동아시아고대학> 제 28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2, p.106.

자는 콩쥐와 뽕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신발만을 보고 신발의 주인을 찾으려고 했고, 이것은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에 나오는 것과는 차이를 가진다.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의 배우자인 왕자는 신발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고, 한 번 보았던 사람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콩쥐팥쥐>와 <뽕감>에서의 신발은 주인공과 배우자를 이어주는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주인공을 대신 나타내주는 존재로도 생각할 수 있다.

(2) 차이점

매우 유사해 보이는 <콩쥐팥쥐>와 <뽕감>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도 찾아볼 수 있다.

전혜경⁷³⁾은 먼저 인물구조에서 <콩쥐팥쥐>의 콩쥐는 결말에서 선비가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고, <뽕감>의 뽕은 이야기 앞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성격을 보이지만 결말부분에서는 본인이 직접 원수를 갚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하였다. 그리고 두 설화에서 조력자가 나타나는 것은 공통점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조력자의 모습이 <콩쥐팥쥐>에서는 샤머니즘적인 존재이고, <뽕감>에서는 불교적 존재로 나타나는 차이점을 가진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구성에서는 이야기의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난제에 있어서 <콩쥐팥쥐>는 계모의 난제, <뽕감>은 감의 계약으로 차이를 보이면서 두 설화의 이야기의 장르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지적하였다. <콩쥐팥쥐>는 주인공 콩쥐가 자신에게 주어진 난제를 도움을 받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맺는 전형적인 민담의 구조인 앞부분과, 주인공의 죽음 후에 선비와 다시 재회 하는 혼인담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뽕감>의 뽕은 감의 방해를 받는 요소 때문에 만남과 이별을 지속하다 시련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는 전형적인 혼인담으로 분류된다. 표현형식적인 측면에

73) 전혜경, 앞의 논문, 2009.

서는 <콩쥐팥쥐>는 민담의 구조와 혼인담이 결합된 복합형식이고, <뽕깜>은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맺는 혼인담으로 단선진행형식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모두 살펴보았다. 한국의 <콩쥐팥쥐>와 베트남의 <뽕깜>이 서로 공통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 위에서 살펴본 공통점 외에도 작고 사소한 부분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같은 나라의 설화라고 해도 믿을 만큼 여러 공통점들을 보였다. 많은 공통점 가운데서도 크게 4가지로 간추려서 살펴보았는데, 두 설화모두 ‘계모 박해담’에 속하는 유형이라는 점과 조력자가 등장했다는 것, 주인공이 환생을 통해 변신하는 변신 모티프가 나타난다는 것, 마지막으로 신발 모티프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신발 모티프가 가지는 불교적 의미는 한국과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특이할 만한 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불교를 종교로 갖지 않는 서양의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의 신발 모티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점이다.

공통점 외에도 조금만 설화를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크게 인물구조, 구성, 표현형식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지만,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위와 같이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 두 설화 이지만, 본 논문에서 계모설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방안에서는 두 설화가 가지는 공통점을 좀 더 부각시켜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을 포함하고 이것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성 안에서 가지는 공통점을 위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계모설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방안의 실제

1) 국어과 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연계 필요성

이제 우리 한국사회는 급격하게 다문화 되어 가는 현상을 비켜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1999년 이후 국제결혼을 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10만 쌍이 넘고, 이들의 자녀는 5만 여명으로 추정된다. 농촌 총각과 동남아 여성의 결혼이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코시안’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은 그 전에 비해 매우 폭증된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5-6년 후에는 일부 농어촌 지역 학교의 재학생 4분의 1이 ‘코시안’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코시안의 증가로 인해 그들의 교육문제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 되었다.

적절한 교육과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교실에서의 문제도 늘어났다.

[왕따·폭력에 멎든 다문화 자녀와 담임교사]⁷⁴⁾

화순의 한 중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가 ‘왕따’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입원까지 했지만 학교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화순의 모 중학교에 따르면 A(14·중 1)군은 지난 5월 초부터 같은 반 친구 8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 가해 학생들은 A군을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하교시간에 시도 때도 없이 구타했고 피해학생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중요부위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기거나 강제로 여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게

74) 2012년 9월 27일, 연합뉴스 기사 발췌.

해 A군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A군의 부모는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이처럼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부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어떻게 언급되었는지 표로 정리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 교육과정 총론에서의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시·도 교육청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지역 교육청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운영	
학교 편성·운영		고등학교	학교 급별 공통사항
		*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 강조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별 학습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 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

	<p>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 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p>	<p>*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p> <p>*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 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p>
--	--	--

		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독도 교육 등
--	--	--

앞선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는 다문화교육이 언급되면서 범교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학교 편성·운영에서 있어서는 고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범교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 가정의 아이는 나와 틀린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조금 다를 뿐 같은 친구다.’라는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줘야 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총론뿐만 아니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이 따로 편성이 될 정도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문화 간 상호 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교육 현장 또한 언어적·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함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과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내용체계에서는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와 함께 ‘문화 의식과 태도’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대부분이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의사

소통이 원활해져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같은 반의 한국 아이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한국어를 잘 말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면 같은 학급 안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왕따가 없어지고 잘 지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답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두 집단의 아이들이 한 학급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기저가 되어야만 서로 간의 다른 점도 이해하고 감쌀 수 있게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다문화교육 현황’에 서도 볼 수 있듯, 주된 내용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이다. 물론 한국어를 잘 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2009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그 대상을 한국어 과목은 기본적으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가정 자녀 등과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어로 하는 학생,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외국인 어머니의 제한된 한국어 수준으로 인해 한국어 능력이 현격하게 부족하여 학교 수업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 제3국 등을 통한 오랜 탈북 과정으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탈북학생, 또는 오랜 해외 체류 후 귀국한 학생 중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학교생활 적응이나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을 주된 교육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같은 반에 있는 한국인 아이들에게도 모두 이러한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위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대상 아이들에게만 교육을 진행한다면 이것은 완전하지 않은 반쪽짜리 교육이 될 뿐이다. 한국인 아이들에게도 모두 함께 교육을 진행하여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어울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 나라의 민족과 문화, 사회를 이해가 되어야만 아이들

은 서로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문화교육은 초·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초·중·고 11,678개 중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150여개에 불과하다. 창의적 체험활동 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에서도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중 다문화교육과 연계되어 필요성을 갖는 과목이 바로 국어교과이다.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상 어느 하나만 잘 한다고 해서 과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이해와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교과가 국어과이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한국어 교육은 물론, 한국의 정서가 스며있는 여러 문학 작품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타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교과를 통해서는 비판적 사고, 논리·분석적 사고, 상상력, 유추·은유적 사고, 확산적 사고 등을 신장하고 이를 위해 토의, 토론, 탐구·발견학습, 프로젝트 수업, 창의적 사고 기법, 협동학습, 역할놀이 등을 수업에 적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국어과 교육 안에서는 글 제재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아이 뿐만 아니라 학급 전체 아이들 모두에게 이러한 교육과 함께 서로를 존중 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도 함께 실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을 실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과목은 국어과라고 말할 수 있다.

2) 계모설화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

(1) 학습영역 및 목표 설정

이제 위에서 미리 살펴보았던 계모설화를 국어교육 안의 제재로 활용하면서 교과서에 나온 학습목표를 성취하는데 실제로 적용해 보도록 한다. 이와 함께 더불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그 외의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활용방안으로도 쓰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실제 지도안을 작성해 보도록 한다.

현재 중학교 교과서 중 <콩쥐팍쥐>를 제재로 실은 교과서는 없었고, 고등학교 국어(상), (하) 16종과 문학 I·II 14종에는 고전소설로서 <콩쥐팍쥐전>이 출판사 교학(윤)에 한 번 나올 뿐이다.

실제 지도안을 작성하는데 대상이 되는 교과서는 '(주) 좋은 책 신사고 중학교 국어 ① 민현식 저'이다. 2013년부터 중학교 국어교과서가 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중학교 국어 ①, ②, ③으로 통합되어 출판된다. 하지만 거의 모든 중학교에서 ①권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업 지도안의 대상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포함된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정하도록 한다.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뽕깎>이 베트남 계모설화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베트남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포함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삼겠다. 교과서의 5개의 단원 중 '4. 갈등을 담은 문학'단원을 선택하였다. <콩쥐팍쥐>와 <뽕깎> 모두 계모와 전실 자식의 갈등이 들어나기 때문에, 문학 작품으로서도 두 설화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안의 학습목표도 문학영역을 중심으로 한 학습목표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선택한 단원 안의 '단원 다지기'의 글 제재를 <콩쥐팍쥐>와 <뽕깎>으로 하여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진도를 맞추기 위해 본문의 뒤에 나오는 '단원 다지기'의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시험 직전에만 살펴보는 경우도 있다. 소홀히 할 수 있는 '단원 다지기'를 재구성하여 앞의 본문과 연결시켜 학습목표도 다시 환기시켜보고, 다문화교육도 함께 다루어 보는 지도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중학교 1-3학년군]의 ‘문학 작품 국어자료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인물의 내면세계, 사고방식, 느낌과 정서 등이 잘 드러난 작품
 -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탐구와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
 - 보편적인 정서와 다양한 경험이 잘 드러난 한국·외국 작품
 -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이 잘 드러난 작품
 -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
 - 비평적 안목이 뛰어난 비평문
 - 삶에 대한 고민이나 성찰을 담고 있는 다양한 매체 자료
-

계모설화인 <콩쥐팥쥐>와 <뽕감>의 경우 위의 ‘문학작품 국어자료의 예’에 드러난 ‘보편적인 정서와 다양한 경험이 잘 드러난 한국·외국 작품,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이 잘 드러난 작품,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등의 성격을 지닌 자료임과 동시에 흥미도 가지고 있어서 수업시간의 글 제재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원 다지기’를 재구성하여 지도안을 짤 때에 사용될 자격을 충분히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먼저 언급되었듯이 지도안의 학습목표는 문학 영역 안에서의 학습 목표이다. 지도안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1차시>

- 갈등의 진행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갈등해결을 위한 등장인물의 행동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2차시>

- 문학 속의 유사점과 차이점 찾기
 -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기르기
-

위의 학습 목표 중 1차시는 교육과정 안의 [중학교 1-3학년군]의 ‘문학의 내용성취기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2)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서사 문학과 극 문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작중 인물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대결하는 과정을 형상화한다는 점이다.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자아와 세계의 대립을 본질로 하는 두 갈래의 특징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이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인물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수용하도록 한다.

문학 작품 안의 ‘갈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갈등이 작품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내용성취 기준을 거의 그대로 교과서로 끌어와서 단원의 학습목표로 삼은 것을 볼 수 있다. 위에 나온 학습목표를 1차시 수업지도안의 학습목표로 삼아서, <콩쥐팍쥐>와 <뽕깎> 안의 갈등을 알아보도록 한다.

2차시 수업지도안의 학습목표는 위에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에서 고려해야하는 내용으로 예를 든 ‘문학 속 인물들의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하기’를 범위를 확장하여 ‘문학 속의 유사점과 차이점 찾기’를 목표로 삼도록 하겠다. 더 나아가 사회·문화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세부 목표 중에 ‘다-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호 문화 이해 및 소통 능력을 기른다.’를 참고 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기르기’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정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록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안을 구성하도록 한다.

(2) ‘단원 다지기’를 재구성한 수업 지도안

수업 지도안은 총 2차시로 구성하였다. 1차시에는 문학작품으로서의 <콩쥐>와 <뫼뫼>을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먼저 1차시 수업지도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시 수업지도안>

교과명	국어	대상	베트남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포함된 중학교 1학년		차시	1/2
대단원	4. 갈등을 담은 문학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의 진행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갈등해결을 위한 등장인물의 행동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수업 자료	시간	지도상의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 입	학습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에게 인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에게 인사한다. 	판서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는 판서한 내용을 지우지 않고, 칠판에 그대로 써두어 학습자가 계속 상기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목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판에 써놓은 학습목표를 확인 시키면 소리로 따라 읽도록 시킨다. - 갈등의 진행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판에 써놓은 학습목표를 확인하고, 큰 소리로 읽어 본다. 			

		등장인물의 행동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전 개	내용 학습	<p>▣ 한국의 계모 설화 <콩쥐팍쥐>와 베트남 계모설화 <땀감>의 이야기가 적힌 프린트를 나누어 주고, <콩쥐팍쥐>의 내용을 간략하게 학습한다.</p> <p>- <콩쥐팍쥐>의 경우 학습자가 거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전체줄거리와 인물, 갈등 등을 간략하게 학습하고, 혹시라도 내용을 모르는 학습자가 있는지 교사가 학습자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한다.</p>	<p>▶ 교사가 나누어준 유인물을 보고, 다시 한 번 <콩쥐팍쥐>에 대해 떠올려 보고, 교사의 설명을 듣도록 한다. 혹시 <콩쥐팍쥐>의 설명을 들으면서 모르는 점이 있다면 손을 들어 질문한다.</p>	참고 자료	25분
		<p>▣ <땀감>의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공부한다. 설명 중간 중간에 학생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는지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면서 수업을 진행한다.</p> <p>- 전체적인 줄거리 파악, 설화에 등장하는</p>	<p>▶ 교사의 설명을 잘 들으면서 <땀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교사에게 손을 들어 질문하도록 한다.</p>		

	인물 및 인물의 성격 파악하고, 설화 안에 나오는 인물들 간의 갈등을 파악한다.				
적용 학습	<p>▣ 설화 안의 갈등에 대해 알아본다.</p> <p>- 나누어준 프린트에 있는 '갈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달아보도록 유도한다.</p>	<p>▶ 앞에서 학습했던 두 개의 계모설화를 떠올리며 프린트 안에 있는 질문에 답을 달도록 한다. 교사가 발표를 시키면, 손을 들어 자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한다.</p>	활동지	10분	
정리	<p>▣ 유인물을 참고하여 오늘 배웠던 <콩쥐팥쥐>와 <뽕깎>을 전체적으로 정리한다.</p>	<p>▶ 교사가 정리하는 내용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는 것은 손을 들어 질문한다.</p>			
	<p>▣ 베트남과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해 A4 한 장 분량으로 조사해 오도록 과제를 내준다.</p> <p>다음 시간에는 <콩쥐팥쥐>와 <뽕깎>을 비교하고, 두 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한다.</p>	<p>▶ 교사가 말해주는 과제를 메모하고, 다음 차시의 수업 내용에 대해 경청한다.</p>		5분	

1차시 수업지도안에서는 학생들이 <콩쥐팥쥐>와 <뽕깎>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도입단계인 학습목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사에서의 갈등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학생들이 갈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 전개단계의 내용학습에서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계모설화인 <콩쥐팥쥐>는 학생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땀감>에 대해 더 자세하게 학습하도록 한다. <땀감>의 경우 베트남 계모설화라고 하면 생소할 것처럼 보이지만, <콩쥐팥쥐>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설화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도안의 큰 흐름에 따라 내용학습 뒤에 전용학습에서는 두 설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마친 뒤 학습활동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학습목표로 제시되었던 ‘갈등의 진행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와 ‘갈등해결을 위한 등장인물의 행동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는 1차시 동안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복습하고, 수업을 마무리 하면서 다음 시간까지 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알려주고, 다음 차시에서 어떤 학습을 할지 학생들에게 미리 예고해주면서 끝을 맺는다.

<콩쥐팥쥐>와 <땀감>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므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무리가 없는 글 제재이면서 무엇보다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약한 중학교 아이들을 좀 더 수업에 집중 할 수 있게 만드는 글 제재이다. 또한 두 설화는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1차시 안에 두 작품을 함께 다루었다.

1차시에서는 먼저 학생들이 문학작품으로서의 <콩쥐팥쥐>와 <땀감>에 대해 학습하고, 흥미를 가지고, 두 작품의 갈등과 전반적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1차시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용된 ‘참고자료’와 ‘활동지’는 다음과 같다.

*** 참고자료 ***

학년 반 번 이름: _____

* 다음은 <콩쥐팥쥐>와 <뽕감>의 줄거리이다.

<콩쥐팥쥐> - ‘경기도 용인군 원산면’ 자료

콩쥐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계모 밑에서 자라게 된다. 계모는 자기가 데리고 온 팥쥐만을 감싸며 콩쥐를 학대한다. 밭을 맬 때 팥쥐에게는 쇠호미를 주고 콩쥐에게는 나무호미를 주어 골탕을 먹이려 하지만, 하늘에서 어머니의 녀인 소가 내려와 도와주고 과일도 준다.

외가의 잔칫날이 되자 계모는 팥쥐만 데리고 가면서 콩쥐에게는 밭 빠진 독에 물 길어 붓기, 밭 빠진 술에 밥 짓기, 곡식을 찢는 등의 과중한 일을 시킨다. 그러나 구렁이와 두꺼비가 나타나 독과 술의 구멍을 막아 주고, 새떼가 몰려와 곡식을 까준다.

콩쥐는 선녀가 주고 간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잔치에 가다가 냇가에서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다. 이 신발이 선비의 눈에 띄게 되고, 수소문 끝에 콩쥐의 것이 판명되어 콩쥐와 혼인하게 된다.

팥쥐는 흥계를 품고 콩쥐에게 접근하여 연못에 빠뜨려 죽이고는 콩쥐처럼 행세한다. 콩쥐가 빠져 죽은 연못에 예쁜 꽃이 폈다. 이 꽃은 콩쥐가 환생한 것이었다. 선비는 연못에 꽃이 핀 것을 보고 꺾어서 문 위에 꽂아 두었다. 꽃은 팥쥐가 출입할 적마다 괴롭혔다. 화가 난 팥쥐는 아궁이에 꽃을 태워버렸다. 꽃은 다시 구슬로 변하였다. 불을 얻으러 온 이웃집 할머니가 구슬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 이웃집 할머니의 도움으로 선비 앞에 나타나 콩쥐는 그 동안의 사

정을 알린다. 선비는 즉시 팔쥐를 죽이고 고기로 만들어 계모에게 보내고, 계모는 고기선물이 온 줄 알고 기뻐하며 고기를 먹다가 딸의 시신인 줄 알자 기절하여 죽는다.

<땀감>

이조 성종 때 레 성을 가진 땀과 감이 살고 있었는데, 땀은 전혀 자식이고, 감은 계모 자식이다. 계모는 땀과 감에게 고기를 더 많이 잡는 사람을 언니로 삼겠다고 말한다. 감은 땀이 잡은 고기를 가로채고, 땀이 울고 있자 부처가 나타난 한 마리 남은 봉고기를 연못에 키우라고 한다. 감은 땀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봉고기를 잡아먹는다. 울고 있는 땀에게 닭이 봉고기의 뼈를 찾아주고, 부처가 뼈를 4등분하여 침대의 네 다리 밑에 묻고 백일 후에 파보라고 한다.

땀이 백일 후 침대 기둥 밑을 파보니 장신구와 옷과 신발이 나왔다. 땀이 신발 한 짝을 씻어서 물소 뿔 위에 말리는데 까마귀가 신발을 태자의 궁에 떨어뜨린다. 태자가 신발주인을 찾아 태자비로 삼겠다고 한다. 계모는 감을 궁에 데리고 가면서 감에게 검은 콩과 흰 콩이 섞인 두 가마니를 가려내고 오라고 시킨다. 이때 부처가 나타나 두 마리 비둘기가 대신 가려내도록 시킨다.

계모는 아버지의 증병을 핑계로 땀을 집에 오도록 하여 까우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오게 시킨 뒤 나무를 베어서 땀이 죽게 만든다. 땀은 환생하여 호아잉 호아익 새가 된다. 후에 계모는 땀 대신 감을 태자비로 들여보낸다. 땀 행세를 하며 태자의 옷을 빨고 있는 감에게 호아잉호아익새가 “내 남편 옷을 깨끗이 빨아라. 울타리에 널지 말고 막대에 널어라! 내 남편 옷 찢길라!”라고 지저귐다. 태자가 이 소리를 듣고 “호아잉호아익! 나의 부인이 맞으면 나의 소매 속으로 들어오고 아니면 돌아가라.”라고 하자 새가 태자의 소매 속으로 들어오고, 태자는 새를 애지중지 키운다. 태자가 외출한 사이 감은 태기가 있는 것을 핑계로 새를 잡아먹는다. 태자가 새털을 버린 곳에 죽순이 자라있는 것을 보고 정성껏 돌보니

깜이 알고 죽순을 잘라먹고 죽순 껍질은 큰 길 삼거리에 버린다. 죽순 껍질은 티 나무가 된다. 거지 노파가 티나무 아래를 지나다 기도하니 티열매가 떨어져 쌀 향아리 속에 들어갔다. 티열매가 쌀 향아리 속에서 익으니, 땀이 튀어 나오고, 땀의 사정을 들은 노파는 땀을 양녀로 삼는다.

노파 남편의 제사일이 되어 땀은 태자를 노파의 집에 초대하고 태자는 길에 자리를 깔고 문에 금칠을 하면 가겠다고 하여 땀은 그대로 한다. 태자는 노파가 찌우를 능숙하게 싸놓은 것을 보고 ‘마치 옛날 아내의 솜씨와 같은데 혹시나 ……’했다. 땀이 파리가 되어 찌우 앞에 표시를 해주는데 태자가 부채를 들어 파리를 쫓으니 노파는 더 이상 찌우를 싸지 못하고 양녀 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대로 태자에게 말한다. 땀이 “끓는 물에 목욕하니 피부가 하얗고 머리가 길어졌다.”고 하자 깜이 그대로 하여 태어죽고 땀은 깜의 고기에 소금을 쳐서 계모에게 보낸다. 고기를 맛있게 먹는 계모에게 지나가던 까마귀가 “애미가 자식의 고기를 먹는구나.”라고 하자 계모는 바닥에 있는 깜의 머리를 보고 비로소 자신이 자식의 고기를 먹은 줄 알게 된다.

위의 ‘참고자료’는 학생들에게 <콩쥐팍쥐>와 <땀깜>에 대한 줄거리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콩쥐팍쥐>의 경우 19편의 자료들이 각 지역에서 전해지는데, 위에 실은 ‘경기도 용인군 원산면 자료’를 실은 것은 전해지는 19편의 자료 중 비슷한 유형으로 가장 많은 자료인 8편을 찾을 수 있고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함께 학습하는 <땀깜>과도 그 줄거리가 비슷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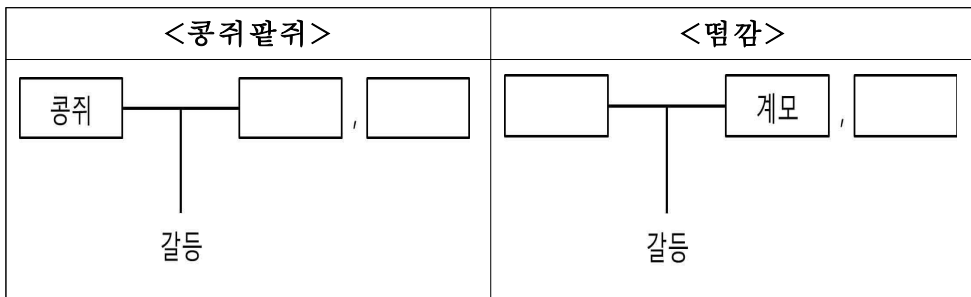
다음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난 뒤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 ‘활동지’이다.

*** 활동지 ***

학년 반 번 이름: _____

*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해보세요.

1. 다음은 <콩쥐팥쥐>와 <뽕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들입니다. 빈 칸에 알맞은 인물을 쓰세요.



2. <콩쥐팥쥐>와 <뽕깜>에 나타난 인물들 간 갈등의 진행을 크게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순서에 맞게 나열하세요.

- ① 계모(혹은 이복동생)이 주인공을 죽인다.
- ② 계모와 이복동생이 주인공과 함께 살게 된다.
- ③ 주인공이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복수한다.
- ④ 계모와 이복동생이 주인공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서 괴롭힌다.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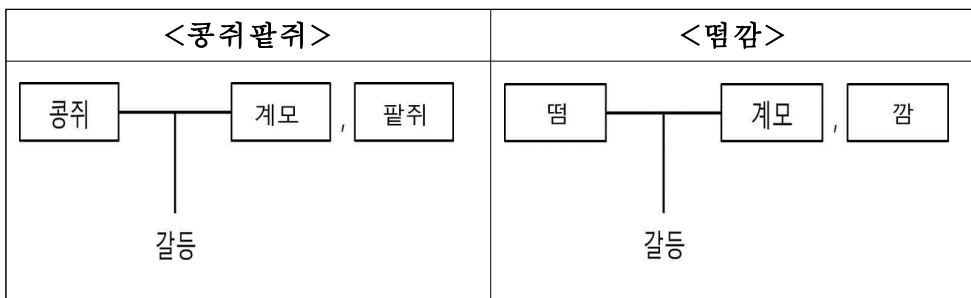
3. <콩쥐팥쥐>와 <뽕깜>의 갈등은 어떤 행동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는지 다음에서 골라보세요.

- ① 주인공이 계모와 이복동생을 용서한다.
- ② 주인공이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복수한다.
- ③ 계모와 이복동생이 주인공을 다시 죽인다.
- ④ 계모와 이복동생이 주인공을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간다.

예시 답안

*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해보세요.

1. 다음은 <콩쥐팍쥐>와 <뽕감>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들입니다. 빈 칸에 알맞은 인물을 쓰세요.



2. <콩쥐팍쥐>와 <뽕감>에 나타난 인물들 간 갈등의 진행을 크게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순서에 맞게 나열하세요.

- ① 계모(혹은 이복동생)이 주인공을 죽인다.
- ② 계모와 이복동생이 주인공과 함께 살게 된다.
- ③ 주인공이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복수한다.
- ④ 계모와 이복동생이 주인공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서 괴롭힌다.

⇨ ② → ④ → ① → ③

3. <콩쥐팍쥐>와 <뽕감>의 갈등은 어떤 행동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는지 다음에서 골라보세요.

- ① 주인공이 계모와 이복동생을 용서한다.
- ② 주인공이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복수한다.
- ③ 계모와 이복동생이 주인공을 다시 죽인다.
- ④ 계모와 이복동생이 주인공을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간다.

먼저 ‘참고자료’를 통하여 <콩쥐팥쥐>와 <뽕감>의 줄거리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고, 앞에서 학습한 줄거리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갈등에 대한 ‘활동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갈등에 대한 것을 학습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갈등을 일으킨 인물이 누구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 인물들 간 일어나는 갈등의 진행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 그 진행의 순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인공의 어떤 행동을 통하여 갈등이 해결되는지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문제를 넣었다. 활동지의 문제는 학습자인 학생의 나이가 중 1인 것을 감안하여 문제만 주고 답을 스스로 쓰게 하는 것보다 힌트를 보고 빈 칸을 채우거나, 뒤죽박죽인 순서를 바로 잡고, 답과 답이 아닌 것을 제시해주고 올바른 답을 찾는 유형을 선택하였다. 만약 문제만 보고 스스로 답을 찾아서 쓰게 한다면 학습자인 학생이 문제를 풀지 않고 포기해버릴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의 유형이 학습자의 흥미를 끌며 좀 더 활동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문제를 구성하였다.

활동지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1차시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대한 예고와 함께 다음 시간을 공부할 때 배경지식으로 필요한 베트남과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하여 조사해 오도록 과제를 제시했다.

2차시 수업지도안의 경우 앞에서 이미 학습한 <콩쥐팥쥐>와 <뽕감>의 속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고, 다문화교육의 방향으로 더 나아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2차시 지도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차시 수업지도안>

교과명	국어	대상	베트남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포함된 중학교 1학년		차시	2/2
대단원	4. 갈등을 담은 문학					
학습 목표	· 문학 속의 유사점과 차이점 찾기 ·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기르기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수업 자료	시간	지도상의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 입	학습 준비	▣ 학생에게 인사한다.	▶ 교사에게 인사한다.	판서	5분	√ 학습목표 는 판서한 내 용을 지우지 않고, 칠판에 그대로 써두 어 학습자가 계속 상기할 수 있도록 한 다.
	전시 학습 확인	▣ 질문을 통해 전 시간 에 배운 설화의 내용을 상기 시킨다. 『질문 1 : 두 설화에 각 각 갈등을 일으키는 인 물은 누구 인가요?』 『질문 2 : 두 설화에 각 각 갈등은 어떻게 진행 이 되나요?』	▶ 전시 학습 내용을 떠 올리며 교사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도록 한다.			
	학습 목표 확인	▣ 칠판에 써놓은 학습 목표를 확인 시키면서, 학생들이 모두 큰 소리 로 따라 읽도록 시킨다.	▶ 칠판에 써놓은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큰 소 리로 읽어 본다.			
전 개	내용 학습	▣ 지난 시간에 학습했 던 프린트를 참고로 하 여 두 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3가지씩 써보고, 학생들에게 적	▶ 지난 시간에 학습했 던 프린트를 보고, <콩 쥐팍쥐>와 <땀값>의 공 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3 가지씩 써보도록 한다.	활동지	25분	

	<p>은 답을 발표하도록 유도한다.</p> <p>- 학생들이 발표를 마치면 인물과 줄거리, 갈등 등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여 답을 이야기해준다.</p>	<p>후에 손을 들고 자신이 쓴 답을 발표한 후 다른 친구들과의 답도 비교해 본다.</p>			
	<p>▣ 두 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본 결과 어떤 것을 느꼈는지 학생들이 직접 발표하도록 유도한다.</p> <p>- 두 설화가 인물, 서사 구조, 갈등 면에서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진 거의 쌍둥이 처럼 흡사한 설화라는 것을 파악했는지 확인한다.</p>	<p>▶ 두 설화를 비교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고, 두 설화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많으며 거의 비슷한 설화라는 것을 알도록 한다.</p>			
	<p>▣ 학생들이 조사해온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한다. 후에 교사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주고,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학습하게 한다. 한국과 베트남은 떨어져 있지만 두 나라의 설화 안</p>	<p>▶ 교사의 설명을 듣고 두 설화가 전해진 한국과 베트남의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알고, 그 배경 또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학습한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나머지만 두 나라의 설화 안</p>			

	<p>에 있는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도 유사한 것을 학생들이 알게 한다.</p> <p>-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나머지 학생들이 서로의 나라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p>	<p>대한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진다.</p>			
적용 학습	<p>▣ 옆의 짝공과 함께 지금 우리 반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발표해보도록 유도한다.</p>	<p>▶ 학생들은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한 뒤 손을 들어 발표하도록 한다.</p>	활동지	15분	<p>√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를 발표하도록 유도한다.</p>
정리	<p>▣ 학생들이 서로 걸모습은 다르지만, 비슷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p> <p>- 걸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보이지 않은 생각과 문화는 다르지 않고 오히려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p> <p>▣ 서로 악수하면서 '넌 내 친구야!'라고 말하도록 하면서 수업을 끝마친다.</p>	<p>▶ 교사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은 서로 자신과 같은 반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친구가 외계인 같은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슷한 설화를 읽고, 비슷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면서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안다.</p> <p>▶ 서로 옆의 친구들과 악수를 하면서 '넌 내 친구야!'라고 말한다.</p>		15분	

2차시 수업 지도안은 먼저 도입단계의 전시학습 확인에서 1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하면서 시작된다. 교사가 전시학습에서 학습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질문하면 학생들은 전시학습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교사의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학습목표는 ‘문학 속의 유사점과 차이점 찾기’이다.

전개 단계의 내용학습에서는 <콩쥐팥쥐>와 <뫼깜>의 비교를 통해 학생들이 두 설화 사이는 인물, 서사구조, 갈등 면에서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지도한 것을 바탕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찾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이것을 파악하는데 쓰이는 활동지는 밑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는 그 전 시간에 과제로 내준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유사점을 조사해온 것을 토대로 학습한다. 두 나라 사이에 어떠한 문화적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한 교사의 부연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안을 구성했다. 적용학습에서는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콩쥐팥쥐>와 <뫼깜>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았던 것처럼, 학급 안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한다.

그리고 정리단계의 학습내용정리에서는 교사는 설화를 공부하면서 이해했던 것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서로가 겉모습만 다르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배경은 유사한 점을 가지는 것을 알도록 지도한다.

만약 이러한 다문화교육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만 이루어졌다면 학급의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포함된 학급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

2차시 수업 지도안에서 사용된 활동지는 다음과 같다.

*** 활동지 ***

학년 반 번 이름: _____

* 다음 문제를 읽고 답해보세요.

다음 보기를 <콩쥐팥쥐>와 <땀감>에 나오는 공통점은 공통점끼리 차이점은 차이점끼리 묶으세요. (차이점의 경우 <콩쥐팥쥐>와 <땀감> 중 어디에 나타나는지도 쓰세요.)

- ① 주인공이 신발을 잃어버린다.
- ② 이복동생이 주인공을 죽인다.
- ③ 계모가 주인공에게 어려운 일을 시킨다.
- ④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나타난다.
- ⑤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복수한다.
- ⑥ 주인공과 이복동생이 화해한다.
- ⑦ 주인공이 환생한다.
- ⑧ 주인공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이복동생이 방해한다.
- ⑨ 주인공은 죽고 난 뒤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 ⑩ 주인공의 아버지도 계모와 함께 주인공을 괴롭힌다.

	공통점	
차이점	<콩쥐팥쥐>	
	<땀감>	

예시 답안

* 다음 문제를 읽고 답해보세요.

다음 보기를 <콩쥐팥쥐>와 <땀값>에 나오는 공통점은 공통점끼리 차이점은 차이점끼리 묶으세요. (차이점의 경우 <콩쥐팥쥐>와 <땀값> 중 어디에 나타나는지도 쓰세요.)

- ① 주인공이 신발을 잃어버린다.
- ② 이복동생이 주인공을 죽인다.
- ③ 계모가 주인공에게 어려운 일을 시킨다.
- ④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나타난다.
- ⑤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복수한다.
- ⑥ 주인공과 이복동생이 화해한다.
- ⑦ 주인공이 환생한다.
- ⑧ 주인공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이복동생이 방해한다.
- ⑨ 주인공은 죽고 난 뒤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 ⑩ 주인공의 아버지도 계모와 함께 주인공을 괴롭힌다.

	공통점	①, ③, ④, ⑤, ⑦
차이점	<콩쥐팥쥐>	②
	<땀값>	⑧

위에 제시한 활동지는 전개단계의 내용학습에서 학생들이 <콩쥐팥쥐>와 <땀값> 사이에 차이점 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진 흡사한 설화라는 것을 이해했는지 파악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활동지’에서는 여러 가지 보기 중에 학생들이 보기를 읽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골라낼 수 있도록 하였다. 보기에는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아예 틀린 보기도 함께 제시 하였다. 차이점의 경우 그 것이 어떤 설화에 나타나는 내용인지까지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교사가 학생

들의 발표를 들은 뒤에는 크게 ‘인물, 줄거리, 갈등’으로 나누어 정리해 준다. 1차시에서 사용한 활동지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직접 찾아서 쓰게 하는 추상적인 문제보다, 보기를 다 주고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문제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수업을 하는 대상인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삽화도 함께 첨가하였다.

1차시와 2차시에서 사용한 ‘활동지’는 학생들이 직접 공부한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자신이 얼마만큼 아는지 확인해 보고, 문학 작품으로서의 <콩쥐팍쥐>와 <뫼까>을 파악하고 학습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설화가 쌍둥이처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은 것임을 알고, 1차시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조사한 과제를 참고하여 두 나라가 이러한 배경들도 비슷하여 이런 영향을 받고 설화도 비슷한 양상으로 형성된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두 나라의 설화를 더 깊이 파고든다면 차이점도 여러 가지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의 수업에서 활용한 두 계모설화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을 부각하여, 학생들에게 두 나라 사이에 문화적 유사성이 많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방향으로 계모설화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유사점을 활용하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다문화 이해에 대한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학습목표를 끌어와 같은 학급의 다문화 가정 학생과 나머지 학생들이 앞에서 공부한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비슷한 문화를 가지는 것을 알면서 서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 중에서도 어느 점이 정말 비슷한지 공통점과 서로 다른 점을 보인다면 왜 그런지 이유와 그 차이점을 함께 찾아보는 과정을 거쳐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서로 비슷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 부분의 경우 답을 찾아야 하는 활동지 보다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발표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마지막에는 서로를 알아주면서 수업을 마무리 하도록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수업 지도안에서 다문화교육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문화적 다양성을 포함하고 이러한 다양성을 서로가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수업 지도안은 총 2차시로 하여 구성해보았다. 학습 진도나 시험에 쫓기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는 것도 학생들의 흥미와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아직 나이가 어린 중학교 1학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업에 대한 이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흥미도 빠져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그리고 좀 더 다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도 심화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 학생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

3) 수행평가를 통한 확대·심화 방안

앞에 수업 지도안에 나타난 다문화 이해 교육은 포문을 여는 시작단계까지만 나타나 있다. 수업 시수가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맞춰지다 보니 진도를 나가기 급급하고, 시험과 관련이 없는 다문화 이해 교육은 자연스럽게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있는 학급과 학교라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학교이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있지 않더라도 학교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혹은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문화 이해 교육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수업 시간에 나타난 다문화 이해 교육은 받을 뎨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 든다. 수업 시간에 좀 더 심화하여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 수행평가를 통하여 교육을 확대·심화 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계모설화를 이용해서 언급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수행평가를 통하여 한 번 더 확대·심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행평가 방법은 한국과 베트남의 계모설화를 학습한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의 계모설

화에 대한 참고자료를 주고, 교사가 기본적으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하여 수행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행평가의 방법은 아이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교사가 게시판을 이용하여 문제를 올리면 학생들이 답을 올리고, 교사가 그에 대해 피드백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방식이라면 학생들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행평가를 진행할 수 있고, 교사도 꼼꼼히 읽고 학생에게 양질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수행평가에 사용되는 참고자료로는 같은 아시아국가인 태국의 계모설화 <빨라 부텅>⁷⁵⁾을 제공 한다. 참고자료에 나타난 <빨라 부텅>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참고자료 ***

학년 반 번 이름: _____

* 다음은 태국 계모설화 <빨라 부텅>의 줄거리입니다.

‘타카라’라는 이름을 가진 어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두 명이었다. 첫째 아내인 카닛타는 딸 으어이를, 둘째 아내인 카닛티는 아이와 이라는 딸 두 명을 두었다. 카닛타는 남편과 고기잡이를, 카닛티는 집안 살림을 맡았다. 하루는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온종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서 남편은 화가 났다. 그러다가 겨우 그물에 걸린 것이 빨라 부텅(작은 물고기) 한 마리였다. 카닛타는 딸에게 준다면 달라고 했으나 남편은 그 물고기를 물에 던져버렸다. 그 뒤로는 그 빨라부텅만 자꾸 그물에 걸렸다. 그 때마다 카닛타는 그 고기를 달라고 했다. 화가 난 남편은 분풀이로 카닛타를 때리고 마침내 강물에 밀어넣었다. 그렇게 카닛타는 죽었다.

75) 김영애, 「태국의 계모형 설화 빨라 부텅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동남아연구> 14권 2호, 2004, p.p.43-48 본 논문은 김영애의 논문에서 사용한 태국의 민담 집 2권에 실린 설화를 재인용한다.

아버지는 으어이에게 엄마는 수궁에 갔는데, 사흘 후에는 엄마가 강물에 떠
오를 거라고 했다. 엄마가 죽은 것을 안 으어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아버지와
계모는 으어이를 집밖으로 끌고 나가 때리고 내쫓았다. 으어이가 열병에 걸려
있어도 계모를 부린다며 야단만 쳤다. 그리고 오리를 치라고 냇가로
내보냈다. 계모는 동네사람들에게 카닛타가 바람이 나서 재물을 훔쳐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엄마를 찾아오라며 딸을 때리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동네사람들은 믿지 않고 으어이를 도와주었다. 그 후 으어이는 계모와
이복동생 아이의 구박을 받았다.

카닛타는 죽은 후에 작은 물고기 빨라부텅으로 환생했다. 딸이 걱정이 된
그녀는 집 근처에서 맴돌다 오리를 치러 나온 으어이를 만나 그 간의 사정을
알려주었다. 으어이는 저녁마다 그 물고기에 먹이를 주며 엄마처럼 대했다. 아
이가 이 사실을 알고 계모에게 일러바쳤다. 계모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
에서 소를 키우라고 으어이를 더 멀리 보내고 아이에게 으어이 목소리를 흉내
내게 하고 빨라부텅을 불러내어 잡아먹었다. 생선뼈는 개에게, 비늘은 오리와
고양이에게 주어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밤에 집에 돌아온 으어이는 빨라부텅
을 만나지 못했다. 물고기의 행방에 대하여 개와 고양이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뚝으나 으어이를 불쌍히 여긴 오리가 그 날 일어난 일을 들려주며 몰래 모아
놓았던 비늘을 내주었다.

다음날 소를 몰고 나간 으어이는 들에 비늘을 묻고 가지나무가 되게 해달라
고 빌었다. 으어이를 불쌍히 여긴 신령은 그 자리에 가지나무 두 그루가 자라
도록 했다. 으어이는 가지나무를 엄마처럼 대했다. 아이가 이 사실을 알고 가
지나무를 뽑아서 가지는 썩어서 고추장에 찍어 먹고 나뭇가지와 잎은 강물에 띄
워버렸다. 오리는 가지씨를 물어다 모아두었다. 으어이는 오리가 물어다 준 가
지씨를 자기가 늘 가는 들판에 심고 아무도 뽑을 수 없는 금색 보리수와 은색
보리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대로 되었다. 으어이는 보리수를 엄마처
럼 대했다.

어느 날 프롬마탄왕이 유람을 나왔다가 아름다운 보리수 두 그루를 보고 그 밑에서 쉬었다. 해가 지자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렸다. 왕은 그 나무가 신령한 나무라고 생각하고 향과 초, 그리고 공양물을 바쳤다. 다음 날 왕은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다. 으어이는 왕 앞에 불려나갔다. 으어이를 본 왕은 아름다운 처녀가 남자나 하는 일을 하는 까닭이 궁금해서 물었다. 으어이는 자초지종을 고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으어이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보리수와 함께 왕궁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보리수를 뽑지 못했다. 으어이가 신에게 빌자 나무는 뽑혔고 왕궁으로 간 으어이는 왕비가 되었다.

계모는 이를 시기하여 음모를 꾸몄다. 마법사에게 돈을 주고 으어이를 죽일 방법을 얻어냈다. 계모는 으어이에게 아버지가 편찮으시니 집에 다녀가라는 전갈을 보냈다. 계모는 집에 도착한 으어이를 환대하는 척하며 더운물에 목욕을 하고 아버지를 만나라고 권했다. 모녀는 물을 끓여놓고 그 위에 미리 부러뜨려 놓은 널빤지를 얹어두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으어이는 널빤지 위에 올라섰다가 끓는 물에 빠져 죽었다.

계모는 자기 딸 아이에게 으어이의 옷을 입혀 왕궁으로 들여보냈다. 아이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누워만 있었다. 그 후부터 창밖에 심은 보리수가 마치 뜨거운 물에 닿은 듯 시들어 축 늘어져 있었다. 죽은 으어이는 앵무새가 되었다. 보리수가 죽어 가는 것을 보고 슬퍼서 애간장이 녹는 듯이 울었다. 우연히 새 울음소리를 들은 왕은 기이하여 앵무새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앵무새는 부모님을 모두 잃고 홀로 되어 신성한 보리수에 둥지를 틀러 왔는데 그 나무가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운다고 했다. 왕은 그 나무에 매일 물을 주며 정성껏 보살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든다고 말하면서, 어디서 보리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 지와 어찌해야 되는지를 아느냐고 물었다. 으어이는 처음부터 자기가 앵무새가 된 사연까지 왕에게 들려주자 왕은 으어이를 불쌍히 여겨 황금새장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새장을 침대 옆에

두고 매일 앵무새와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다. 앵무새가 으어이의 환생이고 왕이 앵무새하고만 즐기는 것을 안 아이는 시기심에 불타 앵무새를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왕이 흰 코끼리를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아이는 앵무새를 잡아다 요리사에게 주고 요리를 해서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했다. 요리사가 앵무새의 날개털과 꼬리털을 뽑자 앵무새는 숨을 쉬지 않고 죽은 척하였다. 이를 본 요리사는 마음 놓고 채소를 가지러 밖으로 나갔다. 그 사이 앵무새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쥐구멍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다. 요리사는 다른 새를 잡아서 요리해 아이에게 바쳤다. 아이는 요리사에게 선물을 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궁에 돌아온 왕은 앵무새가 안 보이자 노발대발하여 온 왕궁을 뒤지게 했으나 아무도 새가 간 곳을 몰랐다. 왕은 슬픔에 빠졌다.

한편 으어이는 쥐의 도움을 받아 한밤중에 요리사의 눈을 피해 간신히 왕궁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앵무새는 코브라를 만나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나무 위에 있던 큰 새가 코브라를 잡아채자 앵무새는 간신히 코브라에게서 벗어났다. 앵무새는 산 속을 헤매다가 도사가 살고 있는 암자까지 갔다. 도사는 꼬리털과 날개털이 빠져 흉측한 모습의 앵무새로부터 그간의 사정이야기를 듣고 측은하게 생각하여 여인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었다. 본래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워진 으어이는 도사의 시중을 들며 살았다. 어느 날 도사는 으어이에게 5살짜리 남자아이를 만들어 주고 아들 삼아 기르도록 했다. 이름을 ‘롭’이라 지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7살이된 롭은 으어이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었다. 으어이는 아버지가 왕이라며 그간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고 왕궁에 있는 보리수나무가 어찌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롭이 왕궁에 가서 왕도 만나고 보리수나무도 살피고 오겠다고 자청하자 으어이는 들꽃을 꺾어 꽃다발 꾸며 말라이를 만들어 롭에게 주었다. 왕은 롭이 가지고 온 꽃공예품에 새겨진 사연을 읽고 옛일을 떠올리고 롭에게 자세히 물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으어이임을 깨달았다.

왕은 롭을 앞세우고 예를 갖추어 으어이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으어이를

데리고 왕궁으로 갔다. 왕은 으어이를 다시 왕비에 봉하며 7일 밤과 낮 동안 잔치를 벌였다. 아이에게는 사형을 명했다. 으어이는 아이가 죽으면 슬퍼할 아버지와 계모를 생각하여, 또 아이를 죽이면 내생에 갚아야할 업보가 더 생기게 되므로 왕에게 구명을 청해 허락을 얻었다. 감옥에 갇힌 아이는 분에 못이겨 자살했다. 왕은 아이의 몸을 토막 내어 소금에 절이도록 한 뒤 아이가 보내는 것이라며 계모에게 보냈다. 계모는 사슴고기인줄 알고 튀겨서 먹었다. 막내딸 이가 아이의 손가락을 발견하자 겁이 난 계모는 남편과 딸을 데리고 도망쳤다. 마침 보살 한 분이 세상구경을 나왔다가 왕궁에 도착했다. 왕은 보살에게 으어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업보에 대해 물었다. 보살은 으어이가 고생한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고 설명해주었다. 전생에 으어이가 독수리였고 아이가 닭이었는데, 독수리가 닭을 잡으려했으나 닭이 간신히 도망쳤다고 했다. 그래서 현생에서 아이는 이복동생으로 태어나 복수를 한 것이라 했다. 닭이 도망쳤으므로 으어이도 현생에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업보는 끝이 없다고 했다. 으어이와 왕은 전생의 잘못을 뉘우치고 병사를 풀어 계모, 아버지 그리고 이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함께 지냈다.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다.

태국의 계모설화를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참고자료로 제시한 것은 같은 아시아 국가이지만 한국·베트남 계모설화와는 확연한 차이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앞의 수업 지도안에서는 학생들이 차이점보다 공통점과 유사점을 찾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다문화교육을 진행하였다면, 심화된 수행평가에서는 공통점은 물론이고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점을 찾는 학습을 함께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태국의 계모설화 <빨라부텅>을 참고자료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기본적인 줄거리와 앞에서 미리 학습한 <콩쥐팍쥐>와 <땀값>과 <빨라부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파악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문제를 담은 활동지는 다음과 같다.

내용이면 ‘빨라부텡’이라고 써주세요. (세 개 다 해당하는 내용이면 ‘콩과 떡과 빨라부텡’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

- ① 주인공의 친어머니를 아버지가 죽이고, 주인공을 괴롭힌다. (빨라부텡)
- ②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나타난다. (콩과 떡과 빨라부텡)
- ③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복수한다. (콩, 떡)
- ④ 계모와 아버지와 이복동생을 용서하고 함께 행복하게 산다.
(빨라부텡)
- ⑤ 주인공이 아닌 다른 인물이 변신한다. (빨라부텡)
- ⑥ 계모와 이복동생이 주인공을 괴롭힌다. (콩과 떡과 빨라부텡)
- ⑦ 주인공이 환생한다. (콩과 떡과 빨라부텡)
- ⑧ 아버지의 역할이 거의 없다. (콩과 떡)
- ⑨ 이복동생이 2명이다. (빨라부텡)
- ⑩ 주인공이 신발을 잃어버린다. (콩과 떡)

먼저 수행평가의 첫 단계로 <콩쥐팍쥐>·<떡감>과 <빨라 부텡>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를 알아본다. 활동지를 통하여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본다. 앞에서 미리 언급하였듯이 수행평가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사가 올린 활동지에 대한 답을 학생이 카페에 올리면 교사는 답을 읽어보고, 틀린 답을 고쳐주고, 모든 학생이 답을 다 올리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카페에 올려서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수행평가의 두 번째 단계는 앞에서 살펴본 공통점과 차이점이 <콩쥐팍쥐>·<떡감>과 <빨라 부텡>에서 왜 나타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첫 단계의 문제를 학생들이 모두 해결하면 교사는 두 번째 활동지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두 번째 단계의 활동지는 다음과 같다.

*** 활동지 ***

학년 반 번 이름: _____

1. 다음은 <빨라부텅>의 이야기입니다. 밑에 제시된 부분을 바탕으로 () 안의 정보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합니다.

① ‘타카라’라는 이름을 가진 어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두명이었다. 첫째 아내인 카닛타는 딸 으어이를, 둘째 아내인 카닛티는 아이와 이라는 딸 두 명을 두었다. (태국의 가족제도)

② 으어이의 아버지는 어부로 물고기를 잡고, 으어이는 냇가에서 오리를 치고, 들판에서 소를 키웠다. (태국의 문화적 배경)

③ 으어이는 아이가 죽으면 슬퍼할 아버지와 계모를 생각하여, 또 아이를 죽이면 내생에 갚아야할 업보가 더 생기게 되므로 왕에게 구명을 청해 허락을 얻었다. (태국의 종교적 배경)

2. 위에 조사한 태국과 수업시간에 공부한 한국·베트남과 가족제도·문화적·종교적 배경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학생들은 이미 수업시간을 통하여 한국과 베트남은 사회·문화적 배경이 비슷하다는 것을 학습했다. 또한 설화들이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다는 것도 함께 학습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조사하면서 두 나라와 태국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차이점을 갖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 설화가 형성되어 한국·베트남의 설화와 태국의 설화가 왜 차이점을 갖는지도 알 수 있다.

수업시간에는 발표를 통하여 이야기 했던 것을 인터넷 카페에 글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 참고자료인 <빨라부텅>의 이야기를 예시로 주고, 학생들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학습해야하는 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였다.

수행평가의 세 번째 단계는 수업시간에 하지 못했던 활동을 해보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활동지 *
학년 반 번 이름: _____
<p>* <빨라부텅>의 주인공인 ‘으어이’가 본인이 겪은 일을 고민 상담을 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콩쥐, 뽕’이 되어 다음에 제시한 [조건]에 맞게 편지글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p>① 각 설화에 나타나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언급합니다.</p><p>② 편지를 받는 주인공이 편지를 쓰는 주인공과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갖는지 언급합니다.</p></div>

으어이에게

으어이야 안녕! 우리는 콩쥐와 뽕이라고해. 네가 게시판에 써놓은 글은 잘 읽어보았어. 정말 많이 힘들었지? 우리도 너와 비슷한 일을 경험해서 너의 고민을 잘 이해할 수 있어.

우리는 아버지의 권위가 무척 센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계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었어. 너는 _____

그래도 나중에는 우리를 괴롭힌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복수를 했는데, 으어이 너는 _____

우리는 차이점도 많지만 비슷한 점도 정말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너의 고민이 꼭 우리 일 같아. 힘내고, 다음에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럼 잘 지내도록 해, 안녕!

각 자가 설화의 주인공이 되어 ‘콩쥐, 뽕’→으어이’에게 쓰는 편지글을 작성해 보는 활동이다. 직접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이 설화의 주인공이 되어 다른 설화의 주인공에게 편지글을 써 보는 것이다. 편지글을 작성할 때는 위에 나온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작성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편지글을 작성하는 활동은 수업시간에는 해보지 못했던 활동으로 학습한 내용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적용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자신이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활동지의 경우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해야하기 때문에 정해진 답은 없다. 자유롭게 쓰되, 교사가 편지글 앞과 뒷부분에 일정한 제시문을 줌으로

써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도록 돕도록 활동지를 구성하였다. 교사는 채점을 할 때 활동지에서 제시한 조건만 들어가 있다면 모두 정답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국가나 유럽 쪽의 계모설화를 찾아보게 하여 보편적으로 비슷한 점들을 보이지만, 각 나라의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그 설화들이 차이점을 갖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한다. 계모설화는 세계적으로 전해지는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에 속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다른 나라의 계모설화도 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교사가 제공한 자료 외에도 학생 스스로 여러 자료를 찾아 문화가 비슷한 점을 갖는 보편성이 있는 동시에 각 나라마다 특성이 나타나는 다양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행평가를 통하여 다문화교육을 확대·심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 보았다. 수업시간에는 한국과 베트남 각 설화를 통하여 각 나라가 사회·문화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다문화교육의 맛보기였다면, 수행평가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하여 다른 나라의 설화를 끌어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 수행평가를 통한 목표이다. 인터넷 카페라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것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구성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설화의 내용을 파악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행평가의 참고자료로 쓰인 계모설화가 전해지는 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이다. 세 번째 단계는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설화의 주인공이 되어 다른 설화의 주인공에게 위로를 하는 편지글을 남기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편지글을 작성하면서 설화의 주인공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왜 그런 상황에 빠졌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교사가 제시한 자료 외에 다른 나라의 계모설

화를 찾아보는 것을 제시하면서 수행평가 활동의 마무리를 지었다.

수행평가를 통한 확대·심화 방안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점을 갖는 차이성과 그 문화들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목표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하려 한 것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수행평가의 목적임과 동시에 기대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다문화교육에는 문화적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문화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했다. 다문화교육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리하기는 힘들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해 2009개정 교육과정에 편성된 ‘한국어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내용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을 ‘한국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연 언어만 잘 배우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그 대상 또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언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나머지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해야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그 교육을 받는 대상도 다문화 가정의 학생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학생들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려면 배워야 하는 내용과 그 대상에 대한 제한이 확대되어야 하는 보완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아직 처음 발표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더욱 많지만, 전체 교육과정 안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해 처음 분리되어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과정은 자체로도 의의를 갖는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살펴본 뒤, 다문화교육에 활용되는 계모설화에 대한 예비적 고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는 계모설화의 형성배경을 살펴보았다. 두 나라 모두 사회가 유교 사상의 영향권에 있었으며, 때문에 사회와 가정에서 남성의 지위와 권위는 막강했지만, 여성의 지위는 형편없었다는 공통점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인을 여러 명 두는 일부다처제의 모습도 함께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억압과 계모가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가정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한 행동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두 나라의 계모설화의 배경을 형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형성배경으로는 한국, 베트남과 밀접한 교류를 주고받은 중국의 영향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서사구조와 변신 모티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콩쥐팥쥐>의 경우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구전설화』에 전하는 19편의 자료를 비교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콩쥐의 죽음으로 결말을 맞이하는 자료도 있었고, 몇 개의 단락으로만 이루어져 설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자료도 있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분류되는 자료는 8편 정도였다. 그리고 <뽕감>의 서사구조를 살펴보았다. 두 설화의 서사구조는 흡사할 정도로 거의 똑같았다. 비슷한 형성배경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같은 나라의 설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유사성을 보였다.

변신 모티프는 변신할 수 있는 유형을 먼저 살펴보고 각 설화에 나타난 변신 모티프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변신하여 나타난 모습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설화의 인물의 성격은 주동 인물과 보조 인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주동 인물에는 설화에서 갈등관계를 이루는 전설 자식, 계모, 이복동생을 포함시켰고, 보조인물에는 그 외의 주변 인물인 전처와 아버지, 조력자를 포함시켰다. 두 설화에 나타난 인물들은 성격 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면모를 보였다. 그들이 설화 안에서 하는 행동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아울러서 <콩쥐팥쥐>와 <뽕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통점은 4가지를 꼽아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계모 박해담’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력자가 등장한다는 것, 그 다음은 변신 모티프가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신발 모티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신발 모티프에서는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에 나오는 모티프임과 동시에 불교 사상

을 받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보이는 불교적 의미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것은 다른 유럽 쪽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점이였다. 차이점의 경우 인물구조, 구성, 표현형식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물론 공통점도 많지만 두 설화를 더 깊이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차이점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수업 지도안은 문화적 다양성을 알고, 그 다양성 안에서 공통점을 찾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두 설화가 갖는 공통점을 더 부각하여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연구했던 계모설화를 활용하여 실제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땀감>이 베트남의 계모설화이기 때문에 지도안의 대상은 베트남 다문화 가정 학생을 포함한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제한하였고, 총 2차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콩쥐팥쥐>와 <땀감>의 전반적인 연구에서부터 계모설화를 다문화교육의 활용방안으로 하여 실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기까지의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문화교육에 대한 수행평가를 통해 확대·심화시키는 방안도 살펴보았다.

설화는 그 나라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복합적인 집합체이다. 오랜 시간 구전되고 전해지면서 그 나라의 사회·문화부터 시작해서 종교, 정치, 민족의식까지도 설화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설화를 연구 자료로 사용한다면,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더 넓게 나아가면 다문화교육을 진행하는데 훌륭한 교육 자료로써도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계모설화는 교훈도 함께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계모설화를 다문화교육의 활용방안으로까지의 연구를 진행했다. 이 때 다문화교육에는 문화적 다양성이 포함되고, 이러한 다양성을 이

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실제 국어교과안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것 보다 교육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여 학급 전체의 학생들을 해야 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계모설화 외에도 타국의 설화들을 어떻게 다문화교육의 실제 수업에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확대·심화 할 수 있는 수행평가 또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므로 여러 각도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개발의 연구도 요구된다. 더불어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것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육 자료로 제공 할지에 대한 연구는 뒤의 연구자들에게 맡기는 바이다.

앞으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계모설화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설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다문화교육의 활용방안으로 좀 더 다양하고 질적으로 풍부한 결과와 이것을 실제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라며 본 논문을 마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구양 외, 『베트남』,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0.
- 김성배, 『한국의 금기어·길조어』, 정음사, 1975.
-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6.
- 노대환·신병주,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돌베개, 2002.
- 양승윤·황규희, 『동남아-중국관계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전 12권, 평민사, 1987-1993.
- 조재현·송정남, 『베트남 들여다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 주경철, 『신데렐라 천년의 여행』, 산치럼, 2005.
-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전 82권, 1980-1988.

2. 학위 및 학술 논문

- 강은혜, 「동아시아 아기장수 설화의 전승과 그 사회 교육적 의미: 한국·일본·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 문화연구> 제 20집, 2009.
- 권순궁, 「<콩쥐팍쥐전>의 형성과정 재고찰」, 한국고소설학회, <고소설연구> 제 34집, 2012.
- 김기태, 「한국인의 베트남 문학연구 고찰」, 한국베트남학회, <베트남연구> 제 2집, 2001.
- 김나영, 「고전소설에 나타난 변신모티프 구현 양상과 의미」, 성신여자대학

- 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 김헌선·최장운, 「〈신데렐라Cinderella〉와 〈콩쥐팍쥐〉이야기의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시민인문학>, 2004.
- 박연관, 「‘콩쥐팍쥐’와 ‘Tam Cam’비교 연구」, 한국베트남학회, <베트남연구> 제 3집, 2002.
- _____, 「베트남의 설화연구 一考察」,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동남아연구> 제 13집, 2004.
- 박연숙, 「한국과 일본의 계모설화 비교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박영민·최숙기, 「다문화 시대의 국어교과서 단원개발을 위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제 34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06.
- 박현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고전텍스트 활용 교육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백수근, 「계모형 고소설의 갈등구조와 인물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양미영, 「다문화교육을 위한 국어교과서 내용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오윤선, 「세계의 신데렐라유형 이야기군 속에서의 <콩쥐팍쥐 이야기> 고찰」, <동화와 번역> 제 11집, 2006.
- 우쾌제, 「가정소설에 나타난 가족의식 고찰」, <고소설연구> 제 2집, 한국고소설학회, 1996.
- 양민정, 「〈나무꾼과 선녀〉형 설화의 비교를 통한 다문화 가정의 가족의식 교육연구 -한국·중국·베트남·몽골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제 15집, 2002.
- 이기대, 「〈콩쥐팍쥐〉의 인간상과 불교적 세계관」, <동아시아고대학> 제 28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2.

- 이승우, 「여우등장 설화의 변신 및 생성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
- 이윤경, 「계모형 고소설 연구: 계모설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 이혜정, 「<콩쥐 팔쥐>의 농경 신화적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 23집, 2011.
- 전혜경, 「한국·베트남 설화의 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베트남인의 기층의식에 대한 고찰-동물기원담을 중심으로-」, 한국베트남학회, <베트남연구> 제 3집, 2002.
- _____, 「한국-베트남 설화에 나타난 여성상 및 기층의식 비교 연구 - 한국의 『콩쥐팥쥐』와 베트남의 『땀감』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베트남학회, <베트남연구> 제 9집, 2009.
- 정상진, 「계모형 설화의 전승 및 서사 양상과 의미」, 부산외국어대학교 어문연구소, <외대어문논집> 제 18집, 2003.
- 정영철, 「계모설화와 계모형 소설의 비교 연구: 구조와 유형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 24집,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4.
- 조동일, 「설화에 나타난 변신의 의미」, <문학과 비평> 제 5집, 창작과 비평사, 1988 봄호.
- 최우인, 「다문화교육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최운식, 「계모설화에 대하여」, <한국민속학> 제 19집, 한국민속학회, 1986.
- 하숙현, 「다문화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양육실제 연구조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3. 기타

-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07개정), 2008.
- _____,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09개정), 2012.
- _____, 『국어과 교육과정』 (2009개정 교육과정 별책 5), 2012.
- _____, 『한국어 교육과정』 (2009개정 교육과정 별책 27), 2012.
- 민혁식 외, 중학교 국어교과서, (주) 좋은 책 신사고, 2013.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외교부, 「베트남 개황」, 2012, 외교부홈페이지 (www.mofa.go.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Multi-cultural Education Method Using Folk tale of Stepmother
-Using <Kongjui and Patjui> in Korea and <Tteom and kkam> in
Vietnam-

Yoon, Bora
Dep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showed multi-cultural education method using folk tale of stepmother. In Korean language curriculum, 2009 edition, multi-cultural education restricts scope to only student in multi-cultural family. However,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 premise that it is real multi-cultural education to extend scope and target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n, this study showed teaching guide and method of multi-cultural education using Korean and Vietnam's folk tale of stepmother.

First, this study looked for overall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s definition and current status in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in current status is classified as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 in current status and Korean language curriculum's multi-cultural education in current status.

After that, it studied a preliminary consideration of <Kongjui and Patjui> and <Tteom and kkam> in big outline of multi-cultural education using folk tale of stepmother. Next, the author looked for background of formation in folk tale of stepmother as well as narrative structure and transformational motif. Character's personality in folk tale was classified by main and sub-character. Main character included former wife's child having conflict relation in folk tale, stepmother, and younger sibling. Sub-character included former wife, father, and supporter. Also, this study looked for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Kongjui and Patjui> and <Tteom and kkam>.

Finally, it mentioned that need for linking with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eaching-learning method using folk tale of stepmother. In addition, extend and intensified method of teaching-learning are considered in this study.

Key word: Kongjui and Patjui, Tteom and kkam, Multi-cultural education, Folk tale of stepmother, Narrative structure, Transformational motif